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 연구 08-21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

이재신/이민영

2008. 12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 연구 08-21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

2008. 12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연구책임자: 이재신

참여연구원: 이민영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1. 28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연구책임자: 이 재 신

참여연구원: 이 민 영

목 차

요약문	7
제 1 장 서론	13
제 2 장 이론적 논의	16
제 1 절 생활세계와 체계의 분석적 구분	16
1. 의사소통과 생활세계	16
2. 체계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21
제 2 절 생활세계와 공론장	26
제 3 절 한국사회의 시민문화와 생활세계	29
제 3 장 연구 방법	38
제 1 절 연구 목적	38
제 2 절 심층 인터뷰	41
1. 심층 인터뷰 조사	41
2. 연구 대상 및 조사 항목	42
3. 최종 가이드라인과 질문 문항	45
4. 심층 인터뷰 절차 및 분석 방법	46
제 3 절 인터뷰 분석 결과	49
1. 새로운 시민문화의 특징	49
2.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역할	59
3. 시민문화와 생활세계의 복원	62
제 4 장 논의 및 결론	68

제 1 절	우리사회의 새로운 시민문화	68
1.	계급해체적 · 시민주도적 참여	69
2.	문화적 축제화	70
3.	저항주제의 차별화 - ‘위험’에 대한 달라진 인식	72
제 2 절	뉴미디어의 역할	75
1.	담론의 생성 및 확산과 인터넷	75
2.	연대의 가속화 도구로서의 모바일	80
제 3 절	새로운 시민문화와 생활세계의 복원	83
제 4 절	결 론	85
참 고 문 헌	87

표 목 차

〈표 3-1〉 심층 인터뷰 기초 가이드라인	42
〈표 3-2〉 인터뷰 집단 구성 및 특징	43
〈표 3-3〉 인터뷰 참가자 목록 및 특징	43
〈표 3-3〉 최종 인터뷰 가이드라인	45
〈표 3-4〉 최종 인터뷰 질문지	46

그 립 목 차

〔그림 3-1〕 심층 인터뷰 수행과정	47
〔그림 3-2〕 심층 인터뷰 분석 과정	48

요 약 문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미디어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는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합리적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주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사회에서 시민의식의 형성은 주요 미디어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매스미디어는 정보 수용자이자 여론 형성자인 공중과의 의사소통에서 일방향적인 정보 주입만을 강요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참여나 토론의 과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많은 제약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훨씬 다양하고 자유로운 ‘담론의 장’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은 허버마스가 염원하던 합리적 의사소통이 전제된 생활세계의 복원에 기여할 새로운 미디어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와 경제라는 체계에 의해 그 본래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생활세계가 새로운 시민문화를 통해 어떻게 다시 재건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복원에 기여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매스미디어의 등장으로 그 본래의 성격을 잃고 체계에 영합해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기여한 오늘날의 공론장이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최근 우리사회에는 어떠한 시민문화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뉴미디어가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새로운 시민문화는 ‘생활세계’의 복원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연구문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개념을 토대로 한국 시민문화의 구조변화 추이에 대해 논의하고, 둘째로 우리 사회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시민문화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뉴미디어의 역할에 관해 살펴보았다. 즉 시민문화와 생활세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공론장이 정치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생활세계의 복원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과거와 달리 급속하게 사회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인터넷을 위시로 한 뉴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주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하여 한국 시민문화에서 일고 있는 생활세계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들을 이론적 측면과 더불어 실제적 측면에서도 조사하였다.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한 이론적 접근에서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시민문화와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연구문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을 체계화하였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지난 2008년 5~6월에 있었던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학생, 일반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문제와 이론적 쟁점을 통해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 답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시사점

2008년 촛불집회는 이전의 시민문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문화를 탄

생시키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이전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교묘한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생활세계를 움죄고 있는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새로운 연대를 통해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그 자체로 평화적 참여와 자발적 연대를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시민문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참여적 차원에서 ‘계급해체적·시민주도적 참여’, ‘문화적 축제화’, 의식적 차원에서 ‘저항주체의 차별화’라는 세 키워드가 핵심이다.

첫째, 2008년의 촛불집회로 새로운 시민참여를 이끌어낸 현대의 시민문화는 이전의 시민문화와는 달리 주도세력이 없는 자발적 개인들의 모임이 그 시작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둘째로는 현대의 시민문화는 ‘문화적 축제화’의 시위 양상을 띠는 점에서 이전의 시민운동과는 차별화 된다. 셋째, 이전의 시민문화가 노동 착취, 자본의 분배, 절대적 권력, 민주화를 위한 투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먹을 것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라는 새로운 차원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즉 기존의 체계의 2차적 파생물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시민문화와는 차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광장문화와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현대의 시민문화에 가장 큰 촉매제가 된 것은 바로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두 뉴미디어, 즉 새로운 의사소통과 전달도구의 등장이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담론의 생성과 확산, 참여와 행동의 독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모바일은 빠른 전송력과 휴대성을 기반으로 집합의 가속화와 빠른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인터넷의 활용은 매스미디어가 실현하지 못한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을 인터넷 공간이 다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의 예증이 될 수 있다. 즉 매스미디어에 의존한 민주주의가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배제한 왜곡된 민주주의를 초래하고 있음이 드러난 후 이러한 사이버 공간, 즉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실증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인터넷과 모바일에 의해 제공된 참여에

제한이 없는 환경은 생활세계로의 회귀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뒷받침 해 주었다. 이러한 생활세계 복원 노력은 합리적인 공론의 장의 마련과 더불어 이를 행동적 차원으로 옮긴 광장에서의 시위, 즉 촛불집회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 계층들의 참여, 평화적이며 심지어 축제적이기까지 한 시위의 분위기 등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시민문화의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 또한 강력해 촛불집회의 참여 자체가 시민들 스스로에게 정치적 힘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동이 되었다.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우리사회에서 합리적 의사소통행위를 수단으로 생활세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저항과 시위 등 이른바 시민문화를 통해 나타났다.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시민문화는 이전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실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도권에서 우리사회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시민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이와 관련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역동적 특성인 시민문화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사회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5. 기대효과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민문화 참여범위의 확대와 집회의 엄숙주의의 파괴는 생활세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 변형된 생활세계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그 생활세계가 부여한 시민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모든 시민사회 구성원들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 같은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음이 발견되었

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규제 등의 사안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결과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시민 문화 형성과 이를 통한 생활세계의 복원을 뉴미디어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포털 사이트 규제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인터넷 같은 뉴미디어의 역할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순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이러한 순기능을 장려하고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1 장 서론

미디어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는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합리적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주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올바른 시민문화 형성에 전제가 되는 공론의 장이란 사회구성원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에 관한 사회적 합의 (social consensus)를 도출하는 담론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하버마스에 의해 구체화된 것으로서,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합리적 구성과 성숙된 시민문화에 바탕을 둔 속의 민주주의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성숙한 시민문화는 체계에 의해 식민화되기 전 합리성이 그 작동원리가 되는 생활세계의 이상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특히 자본의 논리와 정치적 권력에 억압된 현대의 시민들에게 체계적 한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삶의 주권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시민의식의 형성은 주요 미디어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매스미디어는 정보 수용자이자 여론 형성자인 공중과의 의사소통에서 일방향적인 정보 주입만을 강요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참여나 토론의 과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문병훈(1996)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매스미디어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일반대중은 어느 것도 대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매스미디어는 결국 소수의 부와 권력을 지닌 엘리트만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과연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합리성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속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이러한 실현의 원동력이 되는 올바른 시민문화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새로운 시민

문화의 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많은 제약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훨씬 다양하고 자유로운 ‘담론의 장’이 되고 있다(박성호, 2005).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미디어보다 뛰어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토의를 거쳐 여론을 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여론 생성기능에 더하여 여론의 확산과 생산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오늘날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은 하버마스가 염원하던 합리적 의사소통이 전제된 생활세계의 복원에 기여할 새로운 미디어로 평가받고 있다.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촛불 시위로 이끌었던 사건, 효순·미선 두 중학생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죽음을 규탄했던 사건, 2000년 총선시 민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전 세계적인 연대물결에 동참한 반세계화 시위와 이라크전쟁 반대시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촛불시위 등은 기존 매스미디어로는 이행하기 힘든 사회적 작동들로서 새로운 미디어의 합리적 공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며, 동시에 제도정치 영역의 퇴화현상과는 다른 시민운동의 참여 형식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렇듯 정치와 경제라는 체계에 의해 그 본래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생활세계가 새로운 시민문화를 통해 어떻게 다시 재건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나아가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복원에 기여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매스미디어의 등장으로 그 본래의 성격을 잃고 체계에 영합해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기여한 오늘날의 공론장이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들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공론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연구문제 1: 최근 우리사회에는 어떠한 시민문화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뉴미디어가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새로운 시민문화는 ‘생활세계’의 복원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연구문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개념을 토대로 한국 시민문화의 구조변화 추이에 대해 논의하고, 둘째로 우리 사회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시민문화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뉴미디어의 역할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즉 시민문화와 생활세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공론장이 정치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생활세계의 복원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과거와 달리 급속하게 사회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인터넷을 위시로 한 뉴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하여 한국 시민문화에서 일고 있는 생활세계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들을 이론적 측면과 더불어 실제적 측면에서도 조사할 것이다.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한 이론적 접근에서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시민문화와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연구문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을 체계화하고자 할 것이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지난 2008년 5~6월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이하 2008년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학생, 일반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문제와 이론적 쟁점을 통해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생활세계와 체계의 분석적 구분

하버마스 생활세계와 체계의 개념은 시민문화를 이해하고 시민문화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분석틀이다. 오현철(2004)에 의하면 하버마스가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생활세계와 체계의 개념 구분은 사회의 각 영역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구별하여 인식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단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체계에 대한 분석적 구분을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특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의 시민사회에 적용해 현대사회의 권력과 자본, 그리고 이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분석틀로 삼고자 한다.

1. 의사소통과 생활세계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의 구조를 생활세계, 소통적 행위, 사회체계의 연결 등을 통해 진행시켰다. 그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언어적 행위의 규명을 통해 직접 생활세계를 수용하여 그 구조를 명확하게 밝혀내려고 시도하였다. 하버마스는 우선적으로 생활세계의 개념을 후설(Husserl, 1962)의 현상학적 전통과 현상학의 비판적 변형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개념을 부각한 후설에 의하면, 생활세계는 선과학적, 실천적, 일상적 생활세계이다. 즉 생활세계는 항상 주어져 있는, 선여(先與)된 세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여성은 이론적, 개념적 사유에 앞서 매개되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박인철, 2006). 이렇듯 사유나 이론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은 ‘선여된’ 생활세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생활세계는 인간의 의도적 행위에 의해 창출된 인위적인 세계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습관화된 배경의 의미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생활세계는 이미 주어진 배경에서 확실성과 친숙함을 지닌 채, 반복되는 규칙에 의해 정상성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Husserl, 1962). 여기에서의 규칙이란 바로 생활세계가 하나의 습관화된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작동원리이다. 규칙은 인류가 오랫동안 이 땅에 뿌리내리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써 생활세계의 정상성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요소까지 자체 내에서 포괄할 수 있을 만큼 포용적이며 동시에 총체적 성격을 가진다.

둘째, 생활세계는 대상화되거나 주체화되지 않은 세계이다. 따라서 선형적 토대에 대한 생활세계적인 존재론의 의미에서 생활세계가 구분되고, 구체적인 선형철학적 주체성 속에 내재해 있는 요소로서 선형철학적인 관계를 지평과 생활세계로 표현한다(Husserl, 1962). 이러한 지평은 그 본래의 의미상으로도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배경을 뜻하므로 중심이 되는 주체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설의 생활세계에서 주체의 합리적 논리가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이 후설의 해법은 결국 자연적이고 객관적이며 상호주관적으로 타당한 구체적 경험적 생활세계를 초월적 주관의 구성물로 만드는 것이다(서도식, 2001). 다시 말해 하나의 통일된 실체로서의 생활세계에 대한 가정은 타자를 지향하는 초월적 자아의 감정이입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슈츠(Schütz, 1966)가 지적하듯이 생활세계에 대한 이와 같은 후설식 해석은 전후가 전도된 관계이다. 즉 주관의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공통적 환경, 즉 생활세계의 사실성과 사회적으로 각인된 개개인의 지식이라는 것이다. 슈츠에 의하면 “상호주관성은 초월적 영역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세계적 소여”이며, “세계 속에 있는 인간 존재의 존재론적 근본 범주, 즉 모든 철학적 인간학의 존재론적 근본 범주”이다(Schütz, 1966, p.116). 후설(Husserl, 1962) 또한 자신의

현상학적 생활세계 개념에서 지평의 구성에 자아의 주체성이 결여된 것을 필연적인 패러독스라고 인정했으며, 하버마스는 이러한 후설의 생활세계에 대한 자아비판적 한계와 슈츠의 상호주관성/주관성의 전도된 전후관계에 대한 비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즉 하버마스는 후설의 배경과 지평으로서의 생활세계 개념의 의미에 주목해 이들이 지니는 확신과 신뢰성, 배경성을 자신의 생활세계 개념의 핵심적 의미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학적 생활세계 개념이 복합적인 생활세계의 상호주관적 구조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고 본다. 여기에서 하버마스는 비판적 대안으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개념을 도입한다¹⁾. ‘의사소통’ 개념의 도입을 통해 필연적인 패러독스를 극복하지 못한 현상학적 생활세계에 결여된 합리성을 보충하고, 완전한 의미의 생활세계 개념을 성립하고자 한 것이다. 즉 행위의 주체를 지평에 의해 주어진 상호주관성이나 공감각적 능력이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은 것이다.

하버마스가 의사소통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현상학적인 의식철학적 잔재를 생활세계의 개념에서 제거하면서 생활세계는 ‘문화적으로 전승되고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해석표본의 저장물’(Habermas, 1981, pp.190~191)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는 생활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타당성의 기반이자 신뢰성의 원천으로서 모든 일상적 실천의 확고한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어적 상호이해의 상호주관성에 짜 맞추어지는 아프리오리(a priori)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생활세계의 구조는 우선 이러한 언어적 상호 이해의 조건에 대한 형식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서의 사회적 아프리오리란 언어적 상호이해 내지 의사소통의 가능 조건이 된다. 생활세계는 이런 점에서 하나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선험적 장소라는 의미가 된다.

1) 사회화,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처럼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행위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생활세계라고 정의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에 왜곡되지 않은 이해의 미디어로서 언어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생활세계와 언어적 의사소통과의 이러한 상관성은 생활세계가 의사소통 행위의 보충개념으로 정의되고, 이것은 다시 의사소통행위가 “항상 이미” 움직이고 있는 지평이라는 함축을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Habermas, 1981, p.182). 간단히 말하면 전승의 수단이 언어에 있는 한 문화는 명제적 지식의 형태를 떨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도식(2001)에 따르면, 이 같은 해석은 의사소통 행위의 보충개념으로서의 생활세계, 즉 의사소통 행위에 의해 생산, 보존되고 또 다시 의사소통행위 상황에 대한 해석의 원천이 되는 문화적 지식체로서의 생활세계를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세계가 의사소통행위의 이른바 보충개념이자 한편으로는 배경이 된다하더라도 생활세계 개념이 사회 이론에 곧바로 적용되는 개념이고, 문제의 사회이론을 규범적으로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초점을 이루는 의사소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에게 의사소통행위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통합적 질서의 기원과 근거를 설명하는 ‘사회구성의 이론’이다(정호근, 1995). 의사소통적 행위는 각 개개인을 통합시켜 공동체적 질서로 합리적으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하며 생활세계는 바로 이러한 사회질서의 규범적 원토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인철(2006)은 이러한 생활세계의 구성요소로 하버마스가 문화(Kultur), 사회(Gesellschaft), 인격(Persönlichkeit)의 세 가지를 말하면서, 생활세계는 이 세 구성요소의 복합적 연관체이며 각각이 의사소통의 근간으로 나름대로의 재생산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해석한다. 생활세계는 이러한 재생산 구조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구조변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세계 구조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의사소통적 행위이며 이것이 합리성과 결합될 때 사회의 원활한 구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의사소통합리성을 기반으로 현상학적 생활세계 개념과는 구별되는 이러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행위들이 집합된 네트워크로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의사소통에는 합리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구성원들은 이렇

듯 자유롭고 이성적인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간다.

둘째, 이러한 의사소통행위 네트워크로서의 생활세계는 그것이 점차로 누적, 강화되고 특징화, 배경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이나 규범, 사회제도 등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생활세계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또한 자신의 존재 역사가 되기도 하는 등 자체 순환적인 성격을 띤다.

셋째, 생활세계는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매 과정마다 체험된 주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세계 순환적 성격을 가능케 한다.

넷째, 생활세계는 누적과 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 규범 등의 배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생활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인 관점 형성을 가능케 한다. 이것은 생활세계 내에서 소통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 언어가 생활세계 형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으로, 언어의 주체자가 행위 주체자라고 볼 때, 생활세계는 상호소통 과정의 상관계념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생활세계의 공통성은 모든 가능한 이견을 전제로 한다. 즉 상호주관적으로 분리된 지식에 대한 논쟁—일차적 의미의 합리적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생활세계는 단지 이해과정의 지평을 구성하는 맥락이 아니라 ‘해석의 자원(Interpretationsresource)’ (Habermas, 1986, p.590)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러한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며 생활세계에서의 초점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있으므로 생활세계는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환경’(조맹기, 2006)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여러 하위체계들의 실패는 생활세계 안에서 직면하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과 실천과 연대의 출발지점을 형성한다.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편견과 부조리, 그리고 의사소통적 이성도 바로 이 생활세계에 응축되어 있는 ‘전(前)지식’(오현철, 2004, 252쪽)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생활세계는 하버마스 자신이 인정하듯, 합리적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합리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수렴되어 사회전체에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에서 하나의 이상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과 합의점 도출만이 작동원리가 되는 생활세계에서 따로 분화된 자본과 권력이라는 덩치 큰 또 다른 두 체계 때문에 사회는 크게 생활세계와 체계 두 가지로 양분화 되는 필연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체계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해 규제되는 생활세계에 대립해 이와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이른바 체계(system)의 존재를 생활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이론만이 가지는 독창적 특징으로서, 이른바 2단계 사회이론으로 불린다. 즉, 사회가 행위조성 메커니즘이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질서로 층위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회 통합적 질서인 생활세계가 근본적 질서로 주어지고 이로부터 합리화 과정에서 체계 통합적 질서인 사회체계가 파생되어 나온다는 주장이다(Habermas, 1981). 서도식(2001)에 따르면 이 같은 질서구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버마스 행위이론의 지배적인 행위유형이 포괄적인 의사소통 행위이며, 목적론적 행위의 사회적 버전인 전략적 행위는 그것의 한 분석적 유형으로 취급되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원본-파생의 관계는 한 사회 질서에 대한 단순한 경험적 설명을 넘어 규범적 비판까지 의도하는 이론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사회 이론적 분석 장치로 내세운 생활세계와 체계는 이분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 둘의 분석적 구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만으로는 행위를 조정하기가 어렵게 되고, 언어적 의사소통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권력과 화폐와 같은 비언어적 매체를 통해 행위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독립하게 된다. 즉, 생활세계의 언어적 합리성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체계는 경제적, 물질적 구조의

근본이 되는 권력과 화폐라는 조종매체에 의해 작동되고 화폐와 권력은 곧 체계의 두 큰 축을 이루어 오늘날 정치체계와 경제체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제와 정치의 체계작동의 동인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조종매체의 획득이나 행사, 교환관계에 있으며,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법과 제도라는 사회의 물리적 구조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탈언어화된 돈과 권력과 같은 소통의 매체’(Habermas, 1981, p.275)를 근간으로 한 체계 조절의 메커니즘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비언어적 매체에 의해 행위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체계라고 하고 이어 사회적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처럼 여전히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행위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을 생활세계라고 한다(Habermas, 1981)²⁾. 이러한 체계와 생활세계는 전자의 복잡성과 후자의 합리성이 증가하면서 각각 분화되며, 동시에 서로로부터 분리되면서 점차 생활세계의 규범적 질서에 오히려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체계의 구조가 개인 간의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면서 생활세계와 체계가 분리되는 것이다. 생활세계와 체계의 분리 이후에 체계는 자체의 메커니즘에 따라 더욱 확장되고 세력을 넓히면서 점차 생활세계를 잠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의 분화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흐름에 편승해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된 체계는 결과적으로 생활세계를 식민화하게 된다. 이로써 생활세계에서 가능했던 의사소통합리성의 사회구성능력의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근대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사회질서로의 생활세계와 체계를 존재론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개의 사회적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사회질서의 두 측면, 혹은

2) 이러한 체계와 생활세계는 하버마스 이론에서 잉여 생산물의 물물교환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술된다. 이것은 체계가 생활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고, 그때까지는 생활세계만으로 사회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 진화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생활세계로부터 체계는 분리된다(이홍균, 1996).

분석적 요소, 곧 분석적 질서로 취급하는데, 이점은 사회를 “사회적으로 통합된 집단들의 체계적으로 안정된 행위 연관”(Habermas, 1981, p.228)으로 정의한 것과 일관성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동일한 실제적 행위 영역이 참여자의 내적 관점에 따라 이해되는 사회 통합적 질서와 관찰자의 외적 관점에 따라 관찰되는 체계 통합적 질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근대 사회에서의 생활세계와 체계의 분리는 분석적 질서 개념이 실제적인 질서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되는 과정이며(서도식, 2001),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 또한 그런 오해에 바탕하여 생활세계를 체계의 영역에 편입시키려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적 의미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각국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발생,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같은 식민화는 생활세계의 변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생활세계 변형과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크게 3가지 단계를 밟고 있으며, 그 단계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만이 가지는 ‘광복’과 ‘전쟁’, 그리고 ‘전쟁 후’라는 시공간에서 생활세계의 변형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오랜 식민지 생활 끝에 이루어낸 광복과, 광복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이 터진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국토와 낮은 생활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하고 절차적인 방법이 아닌 물질지향적이며 성장지향적인 발전의 방법이 우선시 되었다. 또한 극도로 권위주의적이었던 정권은 강제적인 자원 동원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조직의 지배, 권력관계를 더욱 심화시켰다. 국가의 양육과 보호아래 성장한 기업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천민적인 지배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여기에 전후 경제적 이념대립이 극화되면서 사상의 자유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발화행위조차 제한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생활세계에서 합리적 담론이나 규범체계가 성립될 겨를도 없이 물질조건과 비합리적 규제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렇게 광복과 전쟁 이후 빠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해야 했던 한국 생활세계는 특히 미국 등의 일부 서구 선진형 국가들의 경제와 정치 등을 모방했다고 해서 ‘외부이식형’(김왕배, 2005, 28쪽)이라 불리고 있

다. 이것이 한국 근대성의 특징으로 인식되면서 우리의 근대사는 주변적이고 이중적이며 압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경도되었던 근대화 논리, 이념적 강제와 같은 복합적인 결과들이 억압관계를 강화시키면서 합리적인 생활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 환경이 와해되었으며 특히 정치적 발화행위는 ‘금기’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와 자본이라는 체계의 억압적 측면이 일상생활에 미시적 권력으로 작용하면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좌절되었다. 이로써 한국사회의 생활세계는 자본과 권력체계에 의해 변형되기 시작했다.

2단계는 군사정권 시대와 한강의 기적이라는 정치·경제적 시공간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이루어진 단계이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도 경제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것이 ‘자본의 축적’이라는 목표아래 기능해야 했다. 전쟁 직후의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으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밤낮없이 일해야 했고, 민주주의의 탈을 썼으나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권의 제도 아래 자유를 억압당해야 했다. 한편으로 성의 상품화를 촉진시키는 광고와 이미지를 통해 자본은 성별의 권력관계를 은밀히 고착화시키고 있었고, 압축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갑작스러운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공간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낮은 수준의 자율성과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성을 정부와 국가, 자본에 의해 요구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합리적 의사소통은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논리로 인정되었고, 기성세대에서는 구성원 스스로가 이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생활세계는 자본과 권력, 즉 경제와 정치라는 체계에 완전히 굴복하여 우리 사회의 근대적 공간에서 식민화되기에 이른다.

3단계는 포스트모던이라는 시공간에서 생활세계 식민화의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는,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단계이다. 근대적 공간에서 끊임없이 자본의 축적을 위해 달려온 우리나라는 이제 적어도 경제적인 물질 생산의 양에서는 큰 나라가 되었다. 세계 12위권의 경제 부국이 되었고, 객관적

구조들은 여전히 사회적 통합의 규범이나 가치체계 전근대성과의 마찰 속에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의 구조적 분화와 역량은 커져갔다.

그러나 빠른 사회적 변화와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사조의 범람 속에서 정부의 권력과 경제 부문의 영역은 이전과는 변형된 형태로 과도하게 그 힘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체계에 순응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체계에의 순응은 곧 경제적 부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근대적 공간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적어도 자본에 대한 체계의 억압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서구의 포스트모던이라 불리는 각종 증상들과 국적불명의 행위양태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를 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치체계의 억압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대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으로 대표되는 비군사정권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억압적 형태를 떠던 옛 군사정권 때와는 달리 제한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적, 이념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 생활세계가 추구하던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체계에 의해 억압당하던 생활세계의 곳곳에 나타나는 요소들, 즉 정치적, 경제적 폭력이나 권력에 대해 성찰하고 저항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가와 자본의 거시적 조직화에 점차로 저항하는 진보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맹아적 형태이기는 하나 최근에 이르러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 문화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생활세계의 테두리 속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겪은 일련의 단계별 과정, 즉 생활세계의 변형과 체계에 의한 식민화, 또 이에 대한 변형과 대응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앞으로 합리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생활세계 복원을 점쳐볼 수 있게 되었다.

제 2 절 생활세계와 공론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버마스는 체계의 확장으로 인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조정을 사회구성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생활세계의 변형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체계의 확장은 상호주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탈언어화된 매체인 돈과 권력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의도는 정치·행정 권력이 가져오는 비인간화 효과와 자본에 의한 소외효과의 발생지점인 체계와 그 영향이 미치는 영역인 생활세계를 이론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오현철, 2004). 따라서 하버마스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의 비판적 의도를 확장하면 권력과 자본, 곧 정치체계와 경제체계에 대한 비판과 교정은 체계 내부에서가 아니라 생활세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판과 교정을 위해서는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공론장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공론장의 마련을 주장하게 된다. 체계에 대한 비판의식으로부터 시작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특히 문화산업의 확산 및 이로 인한 문화산업의 수동적 소비자로서의 일반시민의 지위 하락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진정한 공론의 실종에 관한 비관주의적 공론관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로 형성되었다. 하버마스는 정치의 영역을 사회와 국가의 매개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정치 영역이 독자성을 잃고 사적 이익과 국가적 개입의 양방향에서 침식당한 것이 현대의 정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하버마스는 현대 정치의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건전한 이성애 입각한 합리적 토론을 통해 공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 공론장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다.

체제와 생활세계의 이분화된 구조 하에 의사소통의 매개장치로 등장한 근대사회에서의 매스미디어는 하버마스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공적영역에 속하는 생활 세계적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매스미디어의 등장을 대중의 의사소통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식한 것이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로서 일반화된 의사소통 형태인 매스미디어와 일반화된 의사소통의 내용인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사이의 개념적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초기 매스미디어 도입 단계에서 하버마스는 매스미디어가 생활세계를 어떻게 체제에 영합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였다. 그러나 연설, 공개 토론 등 공론장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의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공중의 참여가 배제된 이러한 상품화된 문화는 공중들로 하여금 소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하버마스가 지적하듯 “문화를 논하는 공중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으로의 이행을 실행시켰다. 또한 자본주의사회가 심화되면서 시민적 공론장이 축소되고, 매스미디어에 의해 주도되는 ‘공론장의 재봉건화(re-feudalization)’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한 것이다(Habermas, 1990/2001).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신문과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 역시 생활세계의 변형과 체제에 의한 식민화에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신문과 텔레비전은 그 시작점에서부터 정치와 경제라는 체제의 힘의 논리에 영합해왔다. 보수진영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주류 신문사들은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여 민중들에게 체제지향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공해 왔으며, 6.25 전쟁 이후에는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을 내세워 시민들의 이념적 사유를 제한하고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하여 사회 구성원 각각의 발화 자유권조차 제한받고 있었으므로 시민들의 생활세계는 체제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념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근대적 공간에서 등장한 텔레비전 역시 지배이데올로기를 일방향적으로 다수에 전달하는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상업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

며 성장한 텔레비전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1960년대부터 물질주의와 계층 지향적 소비를 조장하여 시청자들 사이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 사회 참여 등 공적인 가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텔레비전, 즉 영상미디어가 부추기는 물질주의와 과소비 문화가 수용자의 공적인 가치와 사회 책임 의식을 감소시키고 시민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이론화 해왔다 (McChesney, 2000; Schor & Holt, 2000; Turow, 1997).

이들의 주장처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물질주의와 과소비 문화가 경제 발전에 뒤따라오는 ‘부의 바로미터’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텔레비전은 더 이상 하버마스가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이라 불렀던 공론장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신문 등 다른 어떠한 미디어보다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미디어가 가지는 파급력이 크다는 미디어 특성이 더해져, 퍼트남(Putnam, 1995)이 주장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마저 파괴하는 주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텔레비전의 상업성이 시민문화를 파괴한다는 비판은 맑시즘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비판 이론에서 물질적인 사적 영역과 공적 정치 영역을 구분하는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즉, 맑스식으로 해석하자면, ‘공적인 사회 문화적 가치가 물질적인 개인적 욕구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모바일이 하나의 미디어로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공론장에 대한 논의는 전화점을 맞게 된다. 즉 지배이데올로기의 이념과 사유를 대중들에게 일방향적으로 주입하며, 물질주의적 가치를 최상의 가치인 낭 포장해 사회적 가치를 향한 사회 구성원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데 급급했던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는 하버마스가 이상적이라 여겼던 공론장에 더욱 더 근접한 합리적 의사소통이 상호간에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나타난 한국 사회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 3 절 한국사회의 시민문화³⁾와 생활세계

지금까지의 하버마스의 관점을 도입하면 사회는 크게 생활세계와 체계로 구분되고 기본적으로 생활세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 즉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민사회 내에서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궁극적 원리로 하는 다양한 공론장이 형성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공간의 특수성과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한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하버마스가 이상적이라 여겼던 합리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공론장의 형성이 불가능했다. 여기에서 근대적 공간의 특수성이라 함은 한국 사회가 경험한 전쟁과 압축적 사회 변화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압축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전근대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로 급격히 이행되는 과정에서 또한 후기 근대적, 탈근대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압축적 사회변화 과정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회제도와 합리적 질서가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시민문화는 그 중요한 사례이자 생활세계와 체계의 관계 속에 함께 변화를 거듭해 온 가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기나긴 근대화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리잡아온 이러한 근대적 시민문화가 한국사회에서는 그 정착과정을 채 제대로 거치기도 전에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거센 이념적, 물질적, 정치적 압력 때문에 그 날개조차 펴 보지 못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현실은 전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상황과 이후 이것이 동력이 되어 물질주의에 치우치게 된 시민의식, 이념적 자유가 억압당

3) 시민문화의 개념은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가 서구민주주의체제의 안정과 정당화를 추구한 시민문화론, 그람시가 헤게모니 개념을 토대로 서구 민주주의 체제의 변혁을 꾀하며 전개한 시민문화론으로 양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문화에 대한 이러한 본질적인 비교보다는 한국적 시민문화의 변화양상과 이에 따라 변형되고 있는 생활세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시민문화에 대한 이념적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해야 했던 시대적 배경, 미성숙한 민주주의 혹은 변종된 민주주의로 인한 발언권의 제한 등에 기인하며 현재 세대 간, 계급 간, 지역 간의 갈등 등 사회적 갈등 양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의 시민문화는 크게 이중적 의미로 정의된다. 첫째는 시민들의 행위양식을 뜻하는 넓은 의미이며, 둘째는 시민들의 사회적 행위의 의미기초에 기반을 두어 나타나는 참여적 문화를 뜻하는 좁은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두 번째 정의를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민문화는 정치 문화 일반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시민문화의 개념을 사회분석에 도입한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가 제시한 항목들 중 사회적 관계와 시민적 협력, 조직성원과 시민적 능력, 참여 의무감과 시민적 능력에 관한 감각 등을 주요 개념으로 삼고자 한다. 강수택(2007)에 따르면 여기에서 사회적 관계와 시민적 협력은 시민적 참여의 기초가 되는 태도의 차원을 가리키며, 조직성원과 시민적 능력은 시민적 참여를, 참여의무감과 시민적 능력에 대한 감각은 시민으로서의 정체감을 드러낸다.

한국 근대의 시민문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강수택(2006)이 제시한 바 있는 사회적 시민문화 유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시민문화 유형론은 시민문화의 구성요소를 한편으로 공공성과 연대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 다른 한편으로 자율성으로 설정한 후, 이들 요소의 존재 정도와 결합방식에 따라서 초보적 개인주의 시민문화, 초보적 공동체주의 시민문화, 초보적 연대주의 시민문화, 개인주의 시민문화, 성숙한 공동체주의 시민문화, 그리고 성숙한 연대주의 시민문화의 여섯 유형으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초보적 개인주의 시민문화는 자율성과 사회성의 수준이 모두 낮은 시민문화이며, 초보적 공동체주의 시민문화와 초보적 연대주의 시민문화는 공통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율성과 높은 수준의 사회성을 특징으로 한다. 개인주의 시민문화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낮은 수준의 사회성을 특징으로 하며, 성숙한 공동체주의 시민문화와 성숙한 연대주의 시민문화는 공통적으로 자율성 및 사회성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들이다. 공동체주의 시민문화에서는 공공성이 연대성보다 더 강조되는데

비해, 연대주의 시민문화에서는 연대성이 공공성보다 더욱 강조된다. 이와 같은 구분과 퍼트남(Putnam, 2000)이 시민문화에서 주목, 강조한 ‘시민참여’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대 공간에서 일어난 시민문화의 역사적 사례와 생활세계, 체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근대적 공간에서의 시민문화는 초보적 공동체주의 시민문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광복과 6.25를 거치면서 공공의 이익만이 강조되었던 시절, 사회 구성원들은 체계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조차 없을 만큼 빈곤했고, 흐트러진 정국을 바로잡아 줄 만한 체계적 정부가 필요했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정부 수립에 있어서 국가 원수나 정권을 잡은 집권당의 정통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만한 환경적 요인이 성립되지 않았다. 자율성은 제한되고 부국강국을 위한 구성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결집과 끝없는 노동만을 강요받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이루어야 할 사회적·물질적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는 국가와 권력의 지휘아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즉, 이들은 강요받은 결집과 노동을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었다.

이후 목표하던 데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오르고 정치에 대한 의식도 점차로 높아지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정권에 대한 정통성의 부재와 착취에 가까운 노동시간 등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후 이들은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결집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시민문화는 초보적 연대주의 시민문화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느끼고 실천에 옮기고자 한 집단은 바로 노동자 집단이었다. 이들 구성원들은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적 연대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권력과 자본에 대한 투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 즉, 이들은 사회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폭력인 정치적, 억압적, 경제적, 착취적 폭력에 저항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소외와 차별,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와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초보적 연대주의 시민문화의 장에서는 노동자의 동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념이 중시되거나 중앙집권적 거대조직 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노동운동은 정통성이 없는 정치적 세력, 즉 군사정권에 대한 항거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부터는 노동자 집단 이 외에도 대학생 및 학생 집단이 참여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서 그 연대의 규모가 커졌다. 여전히 이념과 사상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고 노동 착취가 만연했던 이 시기에 이러한 학생집단들은 일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와 정치 체계에 항거하게 되고 이러한 항거가 조직화되면서 우리나라 시민문화에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광장을 시민문화 표출의 장으로 삼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광장에서의 저항은 억압적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전면화 되었고, 그 갈등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절정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권력과 자본 체계의 억압도 폭력적으로 불어 닥치면서 이 시기의 시민문화는 후대에 거칠고 저항적인 이미지로 남게 된다.

시민사회의 ‘폭발’이라고까지 평가되는 6월 민주항쟁과 동시기의 일련의 저항들은 이 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되면서 시민사회 내의 헤게모니 지형의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 몰락 이후 저항적 민중사회 운동이 쇠퇴하게 되고 시민사회 내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비정치적 시민운동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문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즉 노동자 집단과 학생 집단의 연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 저항적 시민문화는 시대가 흘린 피와 눈물의 양만큼이나 이념적, 정치적 성과를 얻게 되고, 군부독재 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면서 서구 시민사회만큼 자율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등장한 문민정부 시대부터는 어느 정도 높아진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위와 노동계급의 지위 상승으로 과거의 연대주의적 시민문화에서 있었던 과격하고 저항적인 시민문화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1987년 이전의 ‘국가 대 시민사회’의 단일대결구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층적 대결구도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한다(김호기, 1995). 다시 말해 억압적인 군부독재와 착취적 경제구조적 폭력 하에서의 시민문화는 정치적 민주화와 노동자 권리

획득을 이슈로 저항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루었지만, 정치적 개방이 진행되고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시민사회는 국가와의 대립구도를 해제하고 연대의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의 시민문화는 개인주의 시민문화로 접어들게 된다. 경제적 부가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권을 잡은 정부가 더 이상 저항적 연대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민주화への 의지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정치적 문제의식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공공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극단적 자기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회적 활동이 무엇보다 개인 및 소속집단을 위한 화폐와 권력을 획득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이른바 ‘무규범적 시민사회’(김호기, 2000)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산업화 속도가 빨랐던 만큼 이러한 이기적인 시민문화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사회에서 개인주의에 기반한 시민문화의 성숙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때의 시민운동은 각각의 주된 이슈, 방법, 전략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화되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화의 길을 가게 되었으나⁴⁾, 1980년대까지의 시민운동 및 시민문화가 보여주었던 강력한 결속력과 다수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시민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새로운 형태의 시민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와는 다른 의제와 다른 연대 방법을 가지고 광장에 등장했을 때부터이다. 이는 효순·미선 두 중학생의 죽음을 규탄했던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의 지방도로에서 길을 가던 두 여자 중학생이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가 두 여자 중학생을 추모하자는 뜻으로 인터넷을 통해 촛불집회를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네티

4) 특히 이 시기에는 1989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3년 환경련(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연대 등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결성되었다.

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같은 해 11월 처음으로 서울의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모집회의 성격을 띠었으나, 미군 범정부 사고 장갑차 운전병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반미 시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과거의 폭력적 시위와는 다른 평화적 시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으며, 한국의 대표적 집회 및 시위 문화로 자리 잡게 되어 이후 진보적인 성격을 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제16대 대통령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4년 3월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이 일어나자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결국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04년의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체계에 반기를 드는 성격을 띠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민문화는 이 후 반세계화 시위, 이라크전쟁 반대시위 등 그 이슈도 정치, 경제,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범위로 확대되었다.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는 방법으로 과거와 같은 저항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이나 결집된 모습으로 광장에 나타났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역사적으로 남을 촛불시위가 그 화려한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 시기의 시민문화를 성숙한 공동체주의 시민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 두 중학생의 어이없는 죽음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이 후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러한 광장에서의 시민 의견 표출 문화는 그 시초가 된 것이 2002년 월드컵 경기의 국민적 응원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짐작케 한다. 온 국민이 광장에 모이게 된 계기가 된 월드컵 경기는 자발적, 평화적, 축제적, 세대 화합적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이 후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광장에서의 시위문화도 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젊은 세대들이 16대 대통령 대선, 탄핵반대 등의 평화적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광장집회에서 보여준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적 힘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메인스트림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세대혁명’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대혁명은 1980년대의 정치혁명을 경험한 386세대와 월드컵 세대인 20대 인터넷세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세대혁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참여정부’와 ‘자유주의’, ‘인터넷’이라는 정치적·이념적·기술적 배경이었다. 진보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등장한 참여정부의 수립으로 자유주의의 헤게모니가 강화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다수가 당당하게 자유주의자로 등장하였다.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이념들이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었으며, 이러한 이념의 분출이 더 이상 반공 등의 이유로 제한되지 않으면서 의견의 표출 또한 자유로워졌다. 여기에 참여정부의 시민문화 및 시민단체에 대한 긍정적 기조 또한 한 몫을 했다. 정권 내의 힘의 공간을 시민세력이 채워주길 바랬던 참여정부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이 관료주의, 전근대성, 사회적 병리 등의 해소에 사회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이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정권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수구 기득권층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민단체의 진보성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권의 지지를 얻어 세대혁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시민단체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도 하는 등 그 힘을 넓혀갔다. 당시의 언론은 이를 두고 “시민사회가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새 지평을 연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국일보, 2003.03.03)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의 등장과 이에 따른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시민문화는 일대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으며,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의사소통 장의 기술적 확산 도구가 맞물리면서 그 영향력의 증대가 가속화 되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인터넷의 영향력과 가능성을 미리 감지해, 정책 결정 시스템 과정에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추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터넷 활용은 시민문화 및 시민단체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정권의 정치적·이념적·기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평화적이며, 동시에 결합된 모습을 보여준 2000년 초·중반의 시민문화는 2008년에 이르러 또 한 번의 전

환점을 맞게 된다. 시민문화가 이전의 평화적 성격은 유지하지만 예전의 연대주의 시민문화가 가지던 결속력과 연대의식을 동시에 지니게 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성숙한 연대주의 시민문화의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시민문화는 2008년 17대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부터 시작되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기치로 내걸고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을 정권 내 최대의 목표 과제로 삼은 이명박 정부는 현재 글로벌 경제 이념으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해 참여정부에서 그 시작을 알린 한·미 FTA의 첫발을 알리는 것으로 취임 후 미국 방문 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 등을 들어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 배경과 전 세계에 걸친 광우병 의심 환자에 대한 보도 등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 광장으로 나오게 하였고, 참여정부 시절의 시민문화와는 또 다른 성격의 시민문화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즉 이들 역시 2000년대 초·중반에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촛불을 들었으나 그 결속력과 공통된 목표의식, 그리고 시위의 형태는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을 비롯하여 외신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시민문화가 탄생했다고 주목할 만큼 이 같은 시민문화는 우리나라의 시민문화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과거 민주항쟁과 버금가는 연대의식으로 구성원들은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파급력도 엄청난 것이어서 장관고시의 연기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문화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정부와 이에 다시 폭력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의 유혈충돌로 그 성격이 변질되기도 했으나, 우리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시민문화와 그 영향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비교적 짧은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우리나라는 이렇듯 다양한 시민문화의 스펙트럼을 형성해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시민문화가 완전한 형태의 성숙한 연대주의 시민문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역사와 현재를 통해 확인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변질된 형태로 생활세계에서 분리된 ‘체계’를 바로잡을 만한 내재된 에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성숙한 형태의 연대를 형성하게 된 현재의 시민문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자세히 알아보고, 성숙한 시민문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 미디어, 특히 뉴미디어의 특징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민문화 전반에 상징적 변화 계기가 된 촛불집회를 통해 생활세계의 복원 가능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뉴미디어들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 계층별 촛불집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화적 성격을 띠는 촛불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뉴미디어의 역할, 촛불집회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 사안에 대한 관심도 변화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첫째, 새로운 시민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뉴미디어가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형성되어 이제는 시위와 저항의 상징이 된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민문화가 체계와 위협으로 인해 식민화된 생활세계의 복원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알아본다..

특히 이러한 생활세계의 복원에 관한 분석에서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생활세계의 이상적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특성이 2008년 촛불집회라는 현대의 시민문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2장에서 언급한 하버마스 생활세계의 여섯 가지 특징을 분석틀로 삼아 생활세계의 복원이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2008년 촛불집회라는 현대 시민문화가 의사소통 행위들이 집합된 네트워크로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유롭고 이성적인 의사소통행위가 이루어졌는가, 촛불집회가 합리적인 의사소통행위의 네트워크로서 작용했는가 하

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여기에서 의사소통합리성은 윤리적 차원에서 양해를 지향하고, 행위주체자적 차원에서 언어, 행위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규범적 차원에서는 균형, 기회균등, 그리고 자기관심을 표출시키는 사회제도 형성에 참여하는 행위 등의 총체적 의미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해 가능성’,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이라는 네 가지의 타당성 요구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한다. 즉 의사소통 행위의 참여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해 가능한가(이해 가능성), 그 주장 내용은 참인가(진리성), 내가 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정당성),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한가(진실성)의 문제를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정춘, 2000).⁵⁾

둘째로는 이러한 의사소통행위의 네트워크로서 작용한 2008년 촛불집회가 의견 표출과 의식제고의 누적·강화 과정을 거쳐 배경화 되어 전통, 규범이나 사회제도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는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해 가능성, 진리성, 정당성, 진

5) 그 중심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이정춘, 1994, 262-264쪽):

- ① 이해의 용이성 요구 :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표현을 선택하듯이 듣는 사람도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즉, 상호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적인 규칙체계에 따라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 표현 내지는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 ② 진리성에 대한 요구 : 말하는 사람은 사실적인 내용만을 전달해야만 하는, 즉 자신이 실제존재를 자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상대방에 의해서도 수긍이 가도록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자신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에 의해서도 지각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성에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을 알고 있다. 하버마스는 메시지를 사실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란 메시지가 청자에 의해서도 지각될 수 있는 것을 전해주는 경우라고 한다.
- ③ 정당성에 대한 요구 : 말하는 사람은 상호의사 소통이 가능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수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정된 가치관과 규범들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 ④ 진실성에 대한 요구 : 말하는 사람은 자기진술(자기의 언행에서 추구되는 관심의 표명)을 위한 의지를,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언급 내용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즉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진실 되게 말해야 한다.

실성 등이 함축된 2008년 촛불집회가 결과적으로 체계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힘을 내재하고 있었는가, 기존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이로써 시민문화를 통해 복원된 생활세계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역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는 순환적 성격을 띠는 생활세계의 성격이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순환적’이라 함은 생활세계가 확고하게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 주체들의 체험과 의견, 즉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유연하게 수렴함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행위의 주체들이 얼마나 개방된 의식을 가지고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촛불집회라는 행위의식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넷째로는 2008년 촛불집회가 참여자의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인 관점 형성을 가능케 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즉, 언어의 주체자가 행위 주체자라고 볼 때, 이들 내에서 상호소통 과정이 얼마나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를 통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는 촛불집회의 성격이 비폭력적이며, 동시에 상당히 이성적이었다는 점과 인터넷 및 여러 가지 뉴미디어를 이용해 무조건적인 의견 들이밀기가 아닌, 침착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이성적인 결과를 행위자 스스로 도출해냈다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는 이상적인 생활세계가 모든 가능한 이견을 전제로 하듯, 2008년 촛불집회가 상호주관적으로 분리된 지식에 대한 논증만이 아닌 모든 이견들의 합리적 논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생활세계는 행위주체들의 ‘해석의 자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즉 생활세계가 모든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여섯째로는 2008년 촛불집회가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과 실천, 그리고 연대의 출발지점을 형성하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생활세계에 응축되어 있는

전(前)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내의 편견, 부조리, 그리고 의사소통적 이성이 실천과 연대로의 의지를 형성하게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곧 ‘참여’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참여는 적극적인 세계해석과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 기존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오현철, 2004). 따라서 이것은 이상향인 생활세계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행위 주체자들의 의지형성과 참여에 시민문화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2008년 촛불집회가 생활세계가 갖는 특징의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생활세계의 복원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이를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실증적 인터뷰는 경험적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시민문화에 대해 정의내리고, 생활세계 복원을 예측해 보는 데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제2 절 심층 인터뷰

1. 심층 인터뷰 조사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새로운 시민문화와 생활세계 복원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기초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 한 후 이들에 대한 질문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한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인터뷰를 위한 질문서를 작성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각 참여자를 대상을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 있는 심도 있는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 된 촛불집회의 특성에 주목하여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견되는 뉴미디어의 역할(정보 습득, 의견 공유,

참여 확산의 통로로서의 역할),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생활세계와 시민문화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내면적 의견을 얻고자 주력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설문에 의해 연구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 보다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 참여자의 심도 있는 의견을 얻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에는 심층 인터뷰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 및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2. 연구 대상 및 조사 항목

가. 인터뷰 계획 수립과정

인터뷰 방향과 질문 내용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구문제와 이제까지의 문헌연구를 통해 기초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기초 가이드라인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터뷰 질문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초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개방형 인터뷰 범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질문 내용을 범주화 하는 것은 인터뷰 진행 이전에 이루어지는 연구자의 계획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즉 범주화는 특정 인터뷰 답변을 얻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며 시민문화와 생활세계에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들 중에 본 연구를 통해 관찰하고자 하는 내용에 보다 초점을 맞춘 인터뷰의 기본적인 틀로서 이해될 수 있다.

<표 3-1> 심층 인터뷰 기초 가이드라인

대범주	하위범주
새로운 시민문화	- 시민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시민활동 참여 양상의 변화
미디어의 새로운 역할	- 정보습득 방법의 변화 - 정보 공유 방법의 변화
시민문화와 생활세계	- 일상생활의 변화 - 시민의식 변화

나. 인터뷰 대상자 선정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표 3-1>과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성에 따라 네 그룹으로 구성된다. 앞의 두 집단은 중고생 및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학생 집단을 나타내며 다른 한 집단은 직장인으로 구성된 일반인을 나타낸다. 마지막의 전문가 집단은 학문적 소양을 지니며 사회를 바라보는 집단을 나타낸다.

<표 3-2> 인터뷰 집단 구성 및 특징

구분	집단	특성	사례수
1	중고생	초기 촛불집회를 주도. 먹거리에 대한 공포심과 관심이 모임을 유도.	3
2	대학생	미디어 활용에 가장 적극적. 사회에 대한 참여와 촛불집회 참여도 적극적.	4
3	일반인	생활세계에 대한 의견을 잘 표출 할 수 있는 집단	4
4	전문가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회와 시민문화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집단.	2

<표 3-3> 인터뷰 참가자 목록 및 특징

집단	가명	특징 및 촛불집회 참여 정도
중고생	KKL (여, 중학생)	- 촛불집회 참가 경험 적음.
	HSW (남, 고교생)	- 촛불집회 참가 경험 적음.
	YJH (남, 고교생)	- 촛불집회 후기(後期)에 참가. 경험 적음.
대학생	KHL (여, 대학생)	- 다른 집회에도 참가해 본 경험이 있으며 촛불집회에 수차례 참가.
	LBI (남, 대학생)	-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활발. 촛불집회 적극적 참여.

집단	가명	특징 및 촛불집회 참여 정도
	LBH (남, 대학생)	- 온/오프라인을 통해 촛불집회에 적극적 참여.
	CJM (남, 대학생)	- 촛불집회에 수차례 참가.
일반인	KEA (여, 직장인)	- 30대 유치원 선생으로서 아이들 먹거리에 관심. 촛불집회 1-2회 정도 참가.
	JYJ (남, 직장인)	- 20대 직장인. 촛불집회에 수차례 참가.
	LYS (남, 직장인)	- 30대 직장인. 촛불집회 수차례 참가.
	HSW (남, 직장인)	- 40대 직장인. 촛불집회 적극적 참여.
전문가	KJS (여, 교수)	- 40대 언론학 박사. 촛불집회에 수차례 참가.
	HKD (남, 교수)	- 30대 국문학 박사. 촛불집회에 다수 참여.

중고생 집단을 연구에 포함 한 이유는 초기 촛불집회가 먹거리에 대한 불안에 의해 시청 광장에 모여든 어린 학생들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미디어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계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촛불집회 참여도 적극적인 계층이었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일반인은 연구의 특성상 생활 세계와 관련된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며 전문가 집단은 시민문화와 정치세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얻고자 포함되었다.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가지는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것은 이를 통해 가급적 촛불집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함이었다. 최종적으로, 심층 인터뷰는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중고생 3명, 대학생 4명, 일반인 4명, 그리고 전문가 2명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 최종 가이드라인과 질문 문항

앞서 연구문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기초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보다 구체화된 질문들을 담은 최종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다음의 <표 3-3>에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표 3-3> 최종 인터뷰 가이드라인

1. 촛불집회에 참석하게 된 원인과 과정은 무엇인가?
- 광우병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촛불집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어떠한 과정을 통해 촛불집회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였는가?
2.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 촛불집회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
4.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험한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 촛불집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미디어의 역할이 어떠했나?
- 촛불집회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5. 촛불집회 참여의 결과는 무엇인가?
- 촛불집회 참여를 통해 나타난 일상생활의 변화는 무엇인가?
- 촛불집회 참여를 통해 나타난 정치권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의 변화는?
- 한 시민의 입장에서 향후 정치적 사안에 대한 미래 대응 방안은?

실제 인터뷰 수행을 위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질문서를 작성하였다. 즉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서를 작성하여 심층 인터뷰에 활용토록 한 것이다. 인터뷰 진행자는 <표 3-4>에 제시된 문항들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각 질문에 관련된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3-4〉 최종 인터뷰 질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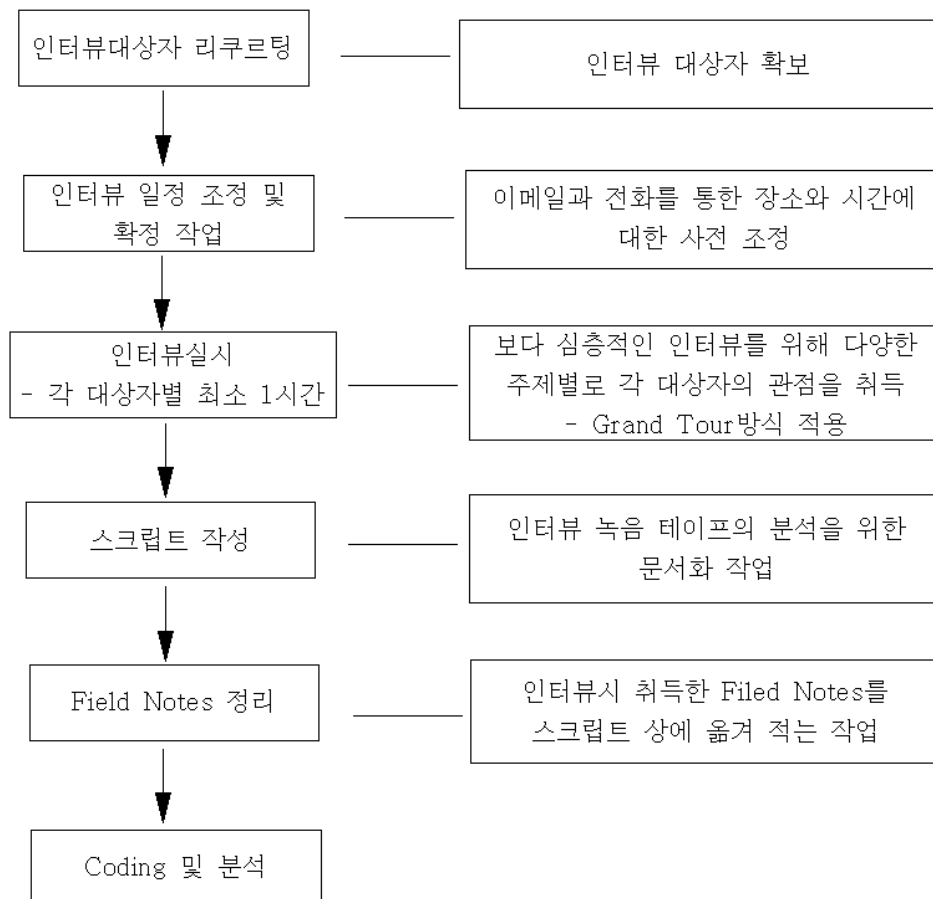
-
- 촛불집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지난 광우병 파동 때 촛불집회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가?
 - 어떠한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했는가?
 - 왜 그러한 정보를 통해 촛불집회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는가?
 - 광우병 위험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어떠한가? 그 이유는?
 - 촛불집회에 참가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 촛불집회 참여 과정에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 촛불집회의 문화적 행사나 퍼포먼스 등을 보며 갖게 된 생각이나 느낌은?
 -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난 미디어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가령 휴대전화 대화와 와이브로 실시간 동영상)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촛불집회 참가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 촛불집회를 통해 본인의 실생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나타난 영향은?
 - 촛불집회 참가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 향후 광우병 사태와 같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하는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4. 심층 인터뷰 절차 및 분석 방법

가. 인터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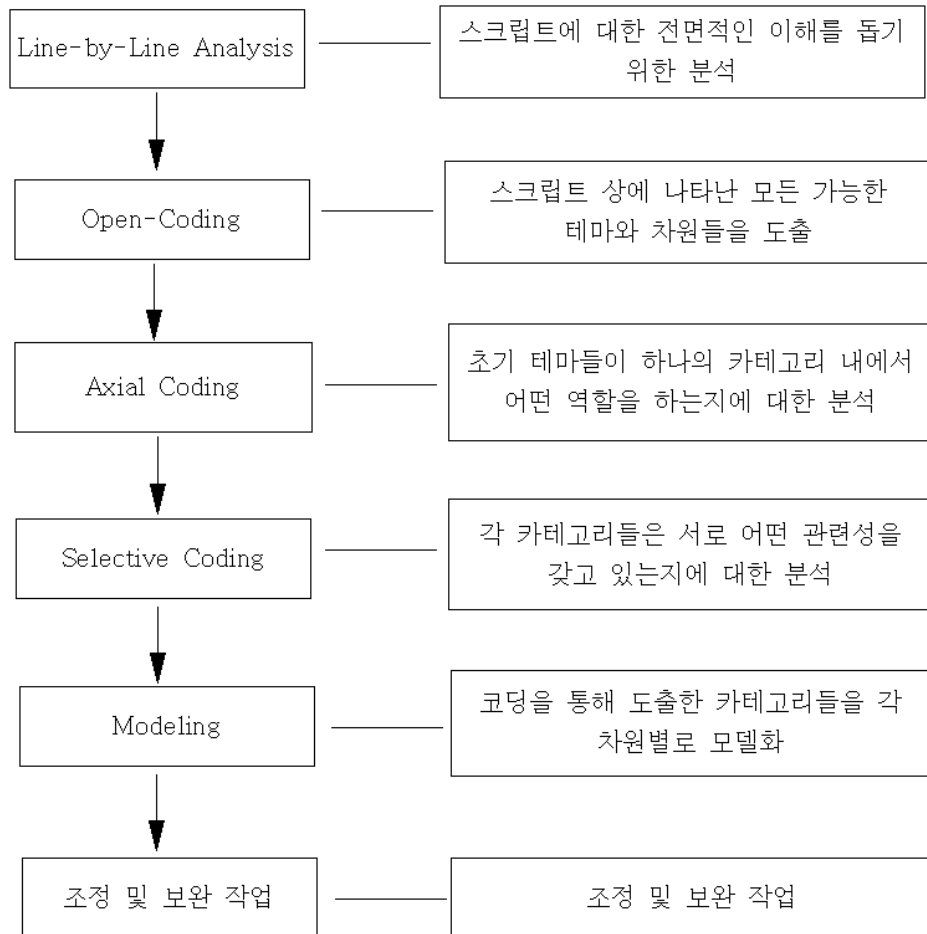
심층 인터뷰의 절차는 다음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은 순서에 의해 인터뷰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1〕 심층 인터뷰 수행과정



나. 인터뷰 분석 방법

〔그림 3-2〕 심층 인터뷰 분석 과정



인터뷰 분석 방법은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녹취된 인터뷰 전문은 지속적인 비교에 따라 주제를 분석하는 패턴 찾기 기법(pattern-find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패턴 찾기 방법은 먼저 녹취된 인터뷰 전체 전문을 여러 차례 읽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녹취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인터뷰 내용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이나 경향을 찾아낸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제, 즉 코드(code)를 유목화하여 정리한다. 연구자는 연구 문제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는 연구 문제를 염두에 두고 생성된 패턴과 주제에 해당하는 코드에 대해 해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더 이상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지 않는 시점까지 반복적으로 분류, 비교, 조합하는 항시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이 사용되었다. 연구문제에 관한 분석결과 최종적으로 3개의 주제가 발견되었다. 연구자는 이렇게 발견된 주제와 코드를 인터뷰 내용과 다시 한 번 비교함으로써 그 적합성과 정확성을 확인한다(Miles & Huberman, 1994).

심층 인터뷰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 측면에서 통계 분석에 의존하는 양적 연구 방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인터뷰 참여자의 주관적 해석과 인식에 의존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즉 인터뷰 참가자 자신의 평소 생각과 주관을 반영한 의견이 자료로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단지 참여자들의 견해를 보여준다는 것을 밝힌다.

제 3 절 인터뷰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시민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촛불집회의 시민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뉴미디어가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새로운 시민문화가 체계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의 복원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1. 새로운 시민문화의 특징

2008년 촛불집회는 이전에 우리사회에 존재하던 시민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문화를 보여주었다. 즉 이전의 물리적이고 억압적이며 폭력적인 방법을 사

용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생활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장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시민문화의 특징은 시민주도적 참여, 문화적 축제화, 새로운 저항 주체의 등장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가. 시민주도적 참여

민주주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하여 한국사회가 보여주었던 그동안의 노력들이 최근 시민주도의 촛불집회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촛불집회의 참여는 특정 집단에 한하지 않으며, 보다 많은 시민주도적인 참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공통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집약적으로 때로는 개별적으로 ‘촛불들기’의 행위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개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한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해체의 의미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저는 자발성의 표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 한 것은 여론선동이나 선동의 개념에서 어떤 큰 모임의 집회를 이끌어가는 특정 집단이나 세력들이 존재 안하려야 안할 수가 없겠죠. 분명 존재하는 세력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일단 참가하고자 하는 의식이 그런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초기에는 오히려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게, 뭐 지금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해서 만들어 가야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국민대책본부가 만들어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LYS, 30대, 회사원).”

촛불집회 역시 대규모의 집회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 참여하였으나, 이들이 모든 개개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이었던 기성세대보다도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

작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세대만의 문제의식이 발현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동일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발전하는 건 충분히 결론적이긴 하지만 사춘기를 겪는 세대가 자꾸 연령이 낮아 지듯이 사회에 참여하는 연령의 나이도 자꾸 낮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예전에는 대학생들이 해야 될 운동의 시작이 이미 중고등학생들로 넘어왔고 그런 운동을 중고등학생이 시작해버렸으니까...그 우리네 또래에 학생운동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성층이 되면서 또 다른 그 우리가 젊었을 때의 기성세대와는 틀린, 아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다시 이런 거에 동참할 수 있구나. 과거에 경험들이 그런 걸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그게 왜 대학생들만 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사회적 참여의 성숙도는 그만큼 충분히 연령대가 낮아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LYS, 30대, 회사원).”

특히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 과거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였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중고등학생들을 위시로 한 젊은 세대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참여와 이해가 넓어지고 계층 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두꺼운 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전과 많이 달랐었을 때는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정점을 쳤던 6월 20일 경이랄 지, 5월 말경인가요? 그 때 쯤에 봐가지고 여론조사를 보면 촛불집회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거의 70%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보기엔 어떠한 그 집회나, 시위나, 이슈에서도 그런 반정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지지를 20%이상 형성한 것을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었던 집회였다는 부분이 기존과는 달랐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금의 확산분위기와도 더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다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HSW, 40대, 회사원).”

이는 또한 세대간, 계층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확산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으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와 공통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 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는 단순히 한 가지 사실과 이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정부적 성격으로까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다수의 개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민 문화는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계층에서 확산되고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표출하고 주장하는 행위에 있어서 보다 평화적이며 성숙한 시민문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옛날 집회들을 생각하고 뭐 진짜 선전 선동이 이루어 질 것 같은 막 그런 세상 분위기 화염병이나 이런 거. 그런 데모를 생각을 얼핏 했었는데 그게 무너졌지요. 아 그게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을 했구나. 진짜 평화롭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물론 차 끌고 나온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 건 분명하지만. 사실은 경찰들이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되지...적어도 저렇게 할 때는 혼나야 되요. 그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못을 하고 있을 때는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해요(LYS, 30대, 회사원).”

특히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 과거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였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위문화가 과거와는 다르게 조직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반정부집회가 평화적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 참여자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대항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투쟁에 놀이의 성격을 가미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직되지 않은 일개 시민으로 아는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삼삼오오 자발적으로 나왔을 뿐이죠. 그러니 나눠주는 촛불 들고 노래 부르고 행진하는 게 전부였었고...투쟁에 놀이의 성격을 가미하는 젊은 친구들의 방식에서 새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을 못 찾는 대목에서는 답답함도 느꼈구요(HKD,

30대, 대학교수).”

이렇듯 새로운 시민문화가 젊은 세대들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개개인들의 자발성과 사회적 공익이 결부되었을 때, 보다 많은 계층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민주화 운동 당시의 목표 지향적 시민문화와 달리 계급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촛불 집회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였던 기성세대로부터 조직성의 결여와 결속력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디씨인사이드라는거 아시죠?. 거기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진중권 쌤이라든지. 제 친구도 거기서 막 활동을 하던데, 아니면 음식 갤러리라는 데가 있거든요...그날 밤을 섰던 날이었는데 되게 배가 고팠어요. 어떤 한 무리가 현수막을 큰 걸 들고 막 와요. “김밥 조공 왔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들고 김밥을 몇 박스를 들고 와서 나눠주더라고요. 전혀 정치적인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디씨인사이드는 되게 사회의 이면이고 좀 막장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냈었죠(KHL, 20대, 대학생).”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디씨인사이드 사이트는 관심주제에 따라 여러 개의 공간(갤러리)으로 나누어진 통합적 사이트를 말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마니아적인 공간인 동시에 사회에 대해서는 도피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상호간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들 간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실제적 사회에서 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단순히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로 후원금을 건어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공감대 층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문화적 축제화

젊은 세대들을 주축으로 한 최근의 촛불 집회는 앞서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개성과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시민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자유로움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 나아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이러한 시민문화가 직접 체험한 여러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시민문화는 과거에 비해 보다 개별적이고 때로는 통합체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되고 각인되어진 성숙한 문화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부터 운동권 행사를 했을 때 단순히 시위만이 아니라 영상을 활용한다던가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촛불 집회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특화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ucc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된 것 같기는 한데요. 거기 내부적인 행사 자체는 목적하는 행사가 좀 동떨어진 행사들도 몇가지 있더라고요..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배제시키고 했었다면 집중력을 더 발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JYJ, 30대, 회사원).”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비롯된 반정부적 성격의 촛불집회에 서는 과거 시위문화에 비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인터넷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행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참여한 집회의 성격이 문화적 행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적 행사들이 오히려 목적의식을 흐리게 했다는 기성세대들의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과거의 집회문화와 최근의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난 시민운동 새로운 변화는 개개인들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시위나 집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하나의 구호를 외치고 그런 건데 여기는 누구 하나 리드하는 사람 없어요. 제일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게 말을 안 듣는 정부,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이런 얘가지 없습니까? 그래 너 소통 안 한다 그래 우리끼리 여기서 놀 테니까 너 나올 때까지 우리는 놀고 있을게 그냥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 면에서 아주 뭐랄까 훨씬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어떤 일치단결한 모습보다도 각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자신을 어필하기도 하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CJM. 20대, 대학생).”

과거의 과격한 시위문화에서 벗어나 동일한 구호와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표현방식과 의식들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의 참여자가 설명하였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폭력성을 배제한 ‘놀이’의 하나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오히려 민주화 운동에서 빈번히 벌어졌던 폭력성에 대항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성숙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숙한 시민문화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토론을 통한 개인의 의사개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며, 이로서 한국 사회가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과거의 시위문화가 한 단계 발전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된 형태의 시민문화는 다음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민들이 항상 지쳐있고 그럴 때 음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악기를 직접 들고 나오셔서. 성의 있는 분들은 드럼까지 다 세트로 구비해서 오셔서 밴드공연까지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시위나 집회의 성격이 많이 변해온 거 같아요 사실. 거의 무력항쟁이었고 치는 쪽도 무력으로 진압하는 쪽이었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식이 한층 성숙했다고 봐요, 저희가 그 집회를 하는 이유가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소통을 하고 싶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기위해서는 일단 시민들끼리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게 이번에 제가 촛불집회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진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민들이 소통하고 있었어요..음악으로도 소통하고, 깃발로도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한 쪽에서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시고 또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소통적인 측면에서 되게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LBH, 20대, 대학생).”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이번 촛불집회가 한국 사회에 가져다 준 새로운 시민문화는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정부와 소통하고자 노력했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비록 반정부적 의식을 가지고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더라도 방법만큼은 과거의 폭력사태에 이르는 보다 낮은 단계에서의 의견표출의 방법을 이용하기

보다는 성숙한 단계에서의 진정한 소통의 자세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자세는 비단 젊은 층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앞서의 계급해체적이고 시민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큰 시위였는데, 각 대학 단대에서도 막 다 온 거예요, 뭐 이화여대, 중앙대에서도 왔었고, 서울대 다 온 거예요. 근데 깃발 아래 모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가서 보면 꼭 엠티 온 것처럼 아니면 뭐 OT 온 것처럼 막 구호를 하고 노래하고 물론 시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젊은이들이 저러고 노는구나 알기도 하고(KHL, 20대, 대학생).”

“굉장히 일단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게 말로만 어떤 구호를 외친다는 것 보다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한눈에 보여 질 수 있으니까 저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나이가 좀 높으신 분들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아 이런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선했어요(KEA, 30대, 유치원 교사).”

춤, 노래, 깃발, 다양한 구호와 토론 속에서 재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힘과 분위기가 오히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회 각계각층에게는 하나의 소통의 창구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사고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다름 아닌 개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민문화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개인의 자발적인 시민사회로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인 모임이 중심이었던 만큼 퍼포먼스나 축제 같은 분위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그런 문화가 시위대의 폭력성을 자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변화를 보이지 않는 마당에 이런 축제 방식이 주

를 이뤄서 답답함이 동반되기도 했습니다(HKD, 30대,, 대학교수).”

특정 단체의 목적의식 아래 동원된 개인이 아닌 자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진지한 참여가 오히려 폭력성을 줄이고 축제의 방식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창을 열지 않았던 정부의 이해부족은 오히려 이러한 긍정적인 시민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을 거쳐 지금의 한국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집회문화의 폭력성을 몸소 체험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축이 되었던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이러한 발전적 집회문화를 ‘성숙한 시민문화’로서 인정하는 동시에 과거의 집회문화의 효과와 비교함으로써 오히려 발전하는 시민문화를 과거로 회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 새로운 저항주제의 등장

과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운동은 노동착취, 자본의 분배와 절대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화 사회로의 투쟁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 촛불집회의 양상은 그 형태의 전환과 함께 사회문제의 주제 또한 변화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었으며, 이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에 반한 반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진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무엇보다도 초기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과 환경적 문제들로 부터 발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계층의 다양한 반응과 우려 속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으로서 발현되었다. 특히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개인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된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유치원 교사다보니까 아이들 먹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제가 광우병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나누기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이 영악하잖아요. TV보니까 촛불시위 이런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아 저도 내 동생이 한 번 가자 그래서 갔다가 애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해줘야겠더라고 해서 갔었죠(KEA, 30대, 유치원 교사).”

“심각했어요. 뭘 먹을까 하면 안돼, 광우병 때문에 위험해 막 이려고, 롯데리아가도 안돼, 광우병 때문에 이려고..우선 먹을 것이 문제니까(KKL, 10대, 중학생).”

이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개인에게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개인의 생활 속의 문제라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저항의 식 주제가 개인의 건강과 행복으로의 차원으로 개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된 저항 주제가 단순히 개인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들이 보다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쇠고기 광우병이 위험해서 나간다는 게 그런 어떤 의식적인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내가 당장 죽을지 모른다는 실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쇠고기 광우병만 얘기하고 그 구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각자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그런 것들이 단순히 관념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걸 했을 때 나에게 오는 실질적인 피해가 뭘까, 나 그걸 당하기 싫다 그래서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CJM, 20대, 대학생).”

이번 촛불집회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건강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많았던 쇠고기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중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시민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나아가 ‘위험’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한 추궁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곧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번져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광우병이 당연히 위험한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발병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산 소고기도 가끔 먹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먹거리에 관한 문제보다는 그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과정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구요. 한편으로는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조금만 더 복잡한 문제라든지 실생활과 조금 동떨어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런 국가에 대한 정부가 정책에 대한 잘못을 했을 때 국민들의 관심이 이정도로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먹거리, 실생활과 연관된 먹거리였기 때문에 그런 전 국민적인 관심과 집회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LBH, 20대, 대학생)."

이러한 확산은 보다 많은 주제와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은 100여일에 가까운 촛불집회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환경파괴로 인한 인간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현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반발 역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부서에 대한 문제랄지 식약청에 대한 문제가 다 수면위로 떠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더 이상 대운하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런 산재되어있는 어떤 토목공사 위주의 현재 환경정책.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부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또 환경단체를 그런 범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거고. 그리고 지금 기류 전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환기가 되었고. 이러한 환기를 통해서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었죠(HSW, 40대, 회사원)."

2.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역할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 보다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유지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인터넷의 특징상 정보 공유 평등과 보편성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접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들을 가능케 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현재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촛불 집회 역시 이러한 다양한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들의 공유는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 가운데에도 촛불집회의 참여에 있어 가장 큰 계기가 된 원인이 인터넷에서 여러 형태의 정보들을 습득하고 공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제 친구가 인터넷에서 광우병 카페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모임을 가져서 갔는데요. 같이 촛불집회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랬어요(HSW, 10대,, 고등학생).”

이렇듯 실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모임과 정보의 공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어린 중고등 학생들로 이루어졌던 촛불집회 초반에는 인터넷의 영향력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즉 연령층을 확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앞서 설명한 디씨인사이드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디씨인사이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한 참여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밤에 같이 모여서 온라인 토론을 많이 하죠.. 사실 이번에 나갔던 기회도 서로 한번 보자 보자 이러다가 집회에 함께 나가게 된거거든요.. 후원금도 좀 걷고 정모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LBI, 20대, 대학생).”

이와 같이 온라인에서의 왕성한 활동이 곧 실제 사회와 동떨어진 구성원간의 토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고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고라’와 같은 토론 게시판에서의 일반 시민들의 활동들과 새로 시도되었던 집회 생중계 등은 시민문화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는 것이 주된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새로운 중계 방식의 출현이 등장하면서 거대매체의 빈틈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인터넷에서 특히 '아고라'가 담론 창출의 공

간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흥미로웠었죠(HKD, 30대, 대학교수)."

"인터넷 생중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6월 전, 마지막 피크 도달하기 전까지 피크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아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물대포 맞고 그러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그런 말하시는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진압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압을 당해요, 그런 것처럼 진압을 당하는데 언론에서는 적소리도 안하고 지나갈 확률이 높는데...그런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YJH, 10대, 고등학생)."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양한 시각의 의견들이 종합되고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을 비롯하여 집회모습을 실황으로 알려주는 오마이 뉴스와 진보신당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공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특정 온라인 사이트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채널들에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그에 따른 파급력과 확산은 오프라인의 집회에서 보다 온라인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참여자는 온라인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연계되어 표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아고라나 인터넷 카페 등 통해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얘기했던 생각들이 동의를 얻고 그 동의를 확인하는 순간, 밖으로 분출되는 힘이 발휘된 게 현재 집회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그런 문화들의 특성이 전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딱 그게 세팅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그냥 어떻게 보면 인터넷과 블로그와 그런 힘이 그리고 다음 아고라가 가졌던 나름대로 직접 민주주의 어떤 인터넷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족감? 투표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새 자유로운 의사참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정치구나 민주주의구나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그 친구들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LYS, 30대, 회사원)."

즉,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토론을 통해 개인은 사회문제에 보다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깊은 사고 능력을 키우고, 이로써

온라인에서만 공유되었던 생각과 관념이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이번 촛불집회의 배경에는 온라인에서의 개별적 행동들의 집합이 오프라인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적 행동을 통해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깨닫게 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후속적 움직임까지 보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실제적인 생중계가 특정 개인일 뿐 아니라 사회적 인사들의 참여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움직임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놀랍게 봤던 거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정태인 선생님이나 진중권 선생님 같은 분들이 바로 카메라를 들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지금 집회 모습들과 나오는 것을 6시간 7시간 12시간 생중계를 해 나가고 그것들이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 창원에서들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창원시내에도 촛불집회를 이끌어내고 그 집회가 LA까지도 되고 전 세계화됨으로 해서 백분토론에서도 광우병 문제에서 대해 미국 LA사는 주부가 전화를 바로 연결해서 촛불집회를 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부들은 사실 받아들이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터넷이 가져오고 있는 전 세계적 문제의 동시화.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확산에 있어서 텀을 주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시위에서 절실히 보여주었죠(HSW, 40대, 회사원).”

이러한 생중계가 가능했던 원인은 와이브로와 같은 기술적 부분들이 토대가 되었으며, 모바일 등의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된 사회가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적 측면에서 아직까지 기술들을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개인 블로그 및 온라인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구현해 나갈 시민문화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시민문화와 생활세계의 복원

현대 시민문화가 생활세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번 촛불집회를 통해 상호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해 진다. 즉 자본주의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현상들이 생활세계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통해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이를 통한 행위적 네트워크 즉, 사회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와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시민문화의 축으로서 생활세계의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우병 만큼은 소만큼은 그거를 위험이 있는 것을 수입을 할수도 있다 위험이 있다 없다가 떠나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놓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 자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그걸 반대한건지 광우병이 위험하다 아니다는 그건 오히려 저 는 후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LYS, 30대, 회사원).”

먼저, 인터뷰 참여자는 촛불집회 참가의 원인이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 대한 허탈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합리적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이해가 생활세계의 복원에 필요하다고 보았을 때 이렇게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힌 것은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련하여 파생된 촛불집회가 이해 가능성,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을 함축하고 있는지, 또한 기존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한 관찰 요소가 된다. 이는 시민문화를 통해 복원될 생활세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는 역으로 기존의 체계가 이해 가능성,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비합리적 과정에 대해 시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을 내림으로써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추구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체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촛불집회 시작의 동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광우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죽고 말고가 아니라, 이 FTA를 체결하는 과정이라든지 굉장히 비민주적이었고 시민들의 얘기를 정확히 듣지도 않았고, 공청회를 할 때도 굉장히 일방적인 통보였고, 사실 그런 과정들은 1,2년 전부터 마찬가지였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도 똑같은 일이었는데, 이게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KHL, 20대, 대학생).”

이처럼 촛불집회는 정당성을 잃어가는 정부에 대한 반감이 사회구성원들 내에서 확산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인터뷰 참여자는 한미 FTA를 비롯한 미국과의 수출입과정에서 비민주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방적인 계약관계에서 나타난 비논리적 체결에 대한 대응으로서 촛불집회가 시작된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정당성 결여는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반정부적 의사표현의 계기가 되었으며 보다 적극적인 행동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촛불집회가 가장 복합적인 성격을 띄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게 맨 처음에는 광우병 파동이라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가지고... 제일 처음에 여고생들이 했었던 문제나 또 우리 뭐 알다시피 0교시 문제랄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입시정책 및 어떤 교육정책의 불신에서 오는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현재정부가 친 재벌적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오히려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가지고 있었던 문제, 또 환경단체들의 대운하 반대 문제랄지, 이러한 각종 사회적 제 이슈가 결합이 되면서 전반적인 현재의 있어서 모든 이슈가 결합된 가장 복합된 형태가 아니었나(HSW, 40대, 회사원).”

이처럼 개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순환적인 성격의 생활세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한다. 생활세계는 단순히 정제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생활세계의 주체가 되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경험과 신념, 소통 등을 통해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됨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있어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러 주체들이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를 확대, 유지하였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의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구성원간의 온·오프라인에서의 상호소통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한 협동적 관계 유지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실천력이 대단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창의적인 시위 문화들을 만들어 낸 점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부대와 다음 카페 아고라 회원들의 식음료 공급 행렬은 공동체 문화의 모범적 사례로 보였습니다(KJS, 40대, 교수).”

“PD수첩에서 방송을 한 이후에 광우병에 대한 우려나, 정부에서 줄속으로 협상을 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컸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경고는 국민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마음속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추상적인 개념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 자꾸자꾸 거대해지는 촛불의 그 바람에 용원을 많이 보냈죠(LYS, 30대, 회사원).”

이러한 기술적, 환경적 요소들 이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면서도 공통적 주제 아래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상적인 생활세계는 모든 가능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생활세계가 모든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요소들은 다음에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했을 때, 어린이, 청소년, 여성, 대학생,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지인들에게 휴대폰 문자 전송을 하는 등 1인 미디어들을 활발히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KJS, 40대, 교수).”

이와 같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나 생활세계로서의 환경적 요소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서 구성되었으며, 실제 정치적 신념과 관점이 다른 개인들과의 소통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촛불집회가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과 실천, 그리고 연대의 출발지점을 형성하게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 내의 편견, 부조리, 그리고 의사소통적 이성이 실천과 연대로의 의지, 곧 ‘참여’를 형성하게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촛불집회 참여는 체계의 부조리와 비합리성에 반발한 자발적 시민 참여의 결과물이며 의사소통의 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목적은 그거예요. 광우병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위험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걸 국민의 합의도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시를 만나기 위한 선물로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국민을 함부로 생각을 했다는 것. 너무 작게 생각했다는 것 나중에 뭐 사과를 했지만 그 부분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네가 잘못된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촛불집회가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LYS, 30대, 회사원).”

“그게 뭐 지금 와서 조직적으로 뭐 정치적인 조직이 이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모차 부대도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갔지(LYS, 30대, 회사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촛불집회가 하버마스의 이상적 생활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가 말한 생활세계의 특성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의 새로운 시민문화인 촛불집회는 일정 정도 의사소통 행위들이 집합된 네트워크로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역할을 했으며, 기존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을 포함하고, 상호소통 과정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이견들의 합리적 논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참여는 적극적인 세계해석과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 기존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들을 포함하

는 것이었다.

“향후 광우병 사태와 유사한 시위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서명 작업 등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능동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인 토론을 전개해 나가고 싶습니다(KJS, 40대, 교수)”.

중요한 점은 위의 언급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참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로서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촛불집회는 우리 현대 사회의 새로운 시민문화로서 기능하는 한편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 의사소통을 실현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 생활세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희망과 단초를 제공해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논의 및 결론

이제까지 이론적 논의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한국의 새로운 시민문화, 뉴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생활세계에 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곳에서는 이제까지의 이론적 논의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 1 절 우리사회의 새로운 시민문화

우리나라의 시민운동과 이에 기반을 둔 시민문화를 돌아보면 그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도록 하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 우리나라 시민문화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촛불집회는 1987년 6월 항쟁처럼 이전의 시민문화와 이후의 시민문화가 갈라지는 지점에 놓여있다. 1987년 6월 직선제 쟁취라는 정치권력의 선출에 관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획득 이후에, 시민운동이 제도권 안으로까지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새로운 과제를 내건 사회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2008년 촛불집회 역시 이전의 시민문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문화를 탄생시키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이전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교묘한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생활세계를 움죄고 있는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새로운 연대를 통해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그 자체로 평화적 참여와 자발적 연대를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이로써 촛불집회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이기적 시민문화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의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

로운 민주주의의 등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시민문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참여적 차원에서 ‘계급해체적 · 시민주도적 참여’, ‘문화적 축제화’, 의식적 차원에서 ‘저항주제의 차별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다.

1. 계급해체적 · 시민주도적 참여

2008년의 촛불집회로 새로운 시민참여를 이끌어낸 현대의 시민문화는 이전의 시민문화와는 달리 주도세력이 없는 자발적 개인들의 모임이 그 시작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민주항쟁, 노동운동 등과 같이 이른바 ‘결사체’라는 강력한 계급적 연대 없이도 시민들 스스로가 사회의 공익을 위해 광장으로 모여든 것이다. 2008년 쇠고기를 주제로 한 촛불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른바 광장의 담론이 일상의 담론이 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그동안 제도의 문제로 이해됐던 사회문제가 사실은 삶의 문제라는 점을 개인들이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계층적 구분 없이 사회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모두의 삶의 문제로 보고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모든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시민문화는 계급해체적 성격을 띠게 된다. 정치적 권력과 신자유주의의 경쟁논리를 앞세워 사회 구성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체계에 맞서, 이전과는 다른 결집 방식으로 시민들이 체계에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주도적 참여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그동안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이슈나 정치 · 경제적 문제에 대해 집회를 조직, 운영하며 구호를 만들어내고 시민문화를 주도하는 일은 운동가들의 일이지 참여하는 시민의 몫은 아니었다. 즉 이전의 시민문화는 결사체의 단일한 중앙지도부의 지도하에 형성되었고 노동, 독재, 착취와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노동자 계층, 대학생 계층, 재야 세력이 그 중심세력이 된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의 정점을 이루던 6월 10일 대규모 시위 이

후 이명박 정부의 탄압으로 주춤하던 촛불집회를 종교계단에서 이어주면서 집회의 연속성에 가교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조직과 집단이 시민들에게 과거와 같은 신뢰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집회 초기에 조직과 집단의 깃발을 앞세우는 것을 거부했던 현상 등은 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다. 이로써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시민문화는 지도부가 없는 시민주도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중고생들로부터 시작되어 대학생, 일반 회사원, 유모차를 끄는 젊은 주부들까지 다양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비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적 축제화

현대의 시민문화는 ‘문화적 축제화’의 시위 양상을 띠는 점에서 이전의 시민운동과는 차별화 된다. 2008년 촛불집회는 참여한 시민들의 축제 현장이었다. 각목과 최류탄이 난무하던 1970-1980년대 저항적 시민문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 2008년 촛불집회는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김밥을 나눠 먹고 밤새 애기꽃을 피우면서 이른바 ‘수만의 외침, 유쾌한 저항’을 실현했다. 촛불집회를 위한 각종 문화 행사가 계획, 진행되었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축제, 토론회와 즉석 강연이 있는 집회로 그 성격을 굳혀갔다. 릴레이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시민들은 투쟁과 축제가 공존하는 즐거운 시위, ‘축제’를 즐겼다. 실제로 인터뷰 참여자들도 촛불집회를 문화적 축제의 하나로서 보는 시각이 발견되며 이러한 문화적 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화행사는 예컨대 인디 밴드들이나 늘 가면 늘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 아스팔트에 앉아서 뭐 아코디언하고, 트럼펫하고. 그냥 아저씨. 딱봐도 아저씨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런분들이 멜로디언 뭐 이런거 가지고 와서 막 아침이슬 이런거 연주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거 연주하면 그냥 그사람들

끼리 앉아서 편하게 하는건데, 막 다 따라부르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그런건 누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KHL).

이렇게 촛불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띠게 된 데는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진 오늘날의 집회법도 한 몫 했지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이유가 가장 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문화행사 등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 행사적 성격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직장인,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등 집회 참가 집단을 증가시켰으며,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했다.

또한 서울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으며, 문화적 축제화 된 촛불집회는 과거 노동자, 남성, 대학생 집단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시민문화의 주 참여자 범위를 지식인, 여성, 중고등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으로 확대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촛불집회에서는 하이힐 부대, 직장인 부대, 유모차 부대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집단들이 전혀 뜻밖의 연대를 결성해 체계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촛불집회에 나온 이러한 각계 각층의 집단들은 대체로 인터넷에서 동종 직업이나 동일한 문화적 기호를 선호하는 동호회 그룹들로 구성되었다(이동연, 2008).

‘82국 닷컴’, ‘마이클럽’ 등 인터넷 주부들의 모임들은 유모차를 이끌고 촛불시위에 참여했고, 자녀들을 키우는 주부들도 ‘앞치마 연대’라는 이름으로 참여했다. 또한 인도주의를 외치는 의사들, 간호사들, 미용 직업을 가진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예비군 복장 그대로 집회에 나와 ‘시위하는 예비군’이라는 30대들의 발랄한 참여도 있었고, 수원 삼성, 성남 일화 등 프로축구 서포터즈들이 연합하여 이명박 정권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2002년 월드컵 때 축제의 일환으로 즐겼던 광장의 문화를 저항의 성격을 띤 비폭력 시위로 바꾸어 놓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참여자들이다. 이들이 가진 문화적 에너지가 시위

를 문화적 축제화 시켰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불어 문화적 성격을 띠고 확산되어 간 촛불집회는 시민문화에서 엄숙주의의 파괴하는데 공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풍자와 해학, 놀이와 문화적 행사가 어우러진 집회문화는 기존의 집회, 기존의 시민문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마우스를 끌고 다니는 행위나 소위 '2MB', '명박산성', '촛불소녀', '닭장투어', '온수구호', '아고라 CSI' 등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수많은 창조적 언어와 행위들은 이전의 집회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상상력의 발현이었다.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집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노하우 역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전 국민적으로 학습된 것이었다. 따라서 참신한 내용의 피켓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 외치는 것도 충분히 경험해본 일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딱딱하고 건조한 구호보다 훨씬 생동감과 친밀감 있는 구호들이 만들어지고 피켓의 형태나 종류도 훨씬 재미있고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문화적 집회의 경험을 한 시민들에게는 이제 일정한 틀에 맞추어진 플래카드 뒤의 인사말과 구호의 낭독으로 이어지는 관성적인 집회는 그 영향력과 파괴력에서 이전처럼 주목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시민문화 참여범위의 확대와 집회의 엄숙주의의 파괴는 생활세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 권력과 자본이라는 체계에 억압되고 변형된 생활세계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그 생활세계가 부여한 시민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모든 시민사회 구성원들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문화적 형태를 띠면서 모든 시민의 의사를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의사소통합리성의 달성으로 인한 생활세계의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저항주제의 차별화 - '위험'에 대한 달라진 인식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현대의 시민문화는 시민들이 의식한 저항 주제에 있어서도 이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전의 시민문화가 노동 착취, 자본의 분배, 절대적 권력, 민주화를 위한 투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먹을 것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라는 새로운 차원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존재,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사회에서 이른바 ‘위험’으로 인식되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정치와 권력, 자본과 노동이라는 사회적 작동원리들은 사회구성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필요조건이 되기도 했지만, 역으로 약간의 불균형이라도 발생하면 이것은 구성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었다. 특히 산업혁명 이 후부터는 산업사회를 뒷받침하는 것이 산업 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정치력과 권력, 자본축적 능력이 되면서, 산업자본주의 제도들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시켰다. 전쟁과 테러, 노동착취와 자본의 불균등한 분배와 같은 위험에 더하여 산업화의 결과에서 파생한 환경 문제, 생태학적 위험 등이 인류를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정춘(2000)은 현대 사회가 처한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은 종래의 분석틀로서는 충분히 해석해낼 수 없는 것들이며, 한눈에 개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범주의 사회적 위험들과 결합되어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근대화의 결과에서 파생된 이러한 위험들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벡(Beck, 1986/1997)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진단하고 현대 사회에 대한 위험의 변화에 대해 지적하면서, 산업혁명 이 후 위험의 요소로 지적되었던 군사, 경제력 등의 문제는 이른바 산업적 갈등논리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대에 직면한 위험은 이러한 산업적 갈등논리가 아닌 환경적 갈등논리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현대의 위험은 방사선과 같이 인간의 평상적인 지각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와 같은 위험은 노동과 자본의 대결로 압축할 수 있는 산업적 갈등의 논리로 제대로 접근하기 힘든 새로운 사회모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정춘

(2000)은 이러한 모순은 분명히 산업화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노동 대 자본’의 차원을 넘어서고 다차원적 갈등구조, 더욱 복잡한 인과적 관계, 그리고 거시적 내지 장기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2008년 촛불집회의 저항 주제가 된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파동’ 또한 백이 지적한 바와 같은 환경적 갈등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각종 기계 및 공산품, 심지어 농산물과 서비스까지 무역이라는 장치를 통해 교류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유독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감을 산 원인이 된 것에는 이러한 환경적 갈등논리에 기인한 환경적 위험요소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 향상이 큰 몫을 했다. 현대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만이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권 및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아님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도축우가 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인지한 시민들은 사회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자체를 생활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군으로 위치시키고 이에 대한 저항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요소는 체계의 확장-위험요소의 확장으로도 재해석 할 수 있다. 하버마스가 그의 시대에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권력과 자본을 지적했다면, 오늘날에는 여기에 환경적 위험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일차원적으로 해석하자면 환경적 위험요소, 또는 먹을 것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하버마스의 지적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나, 체계의 작동원리에 대입한다면 이와 같은 위험은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체계의 모순과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환경적 위험이 바로 체계의 구성요소인 권력과 자본의 결정체, 즉 산업사회의 결과물에서 파생된 2차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2008년 촛불집회는 권력과 자본이라는 체계와 더불어 산업사회의 2차적 위험, 즉 기존의 체계의 2차적 파생물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시민문화와는 차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과 행동적 차원에의 연결에는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

른 확산을 담당한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이 기반이 되었으며, 따라서 2008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지각하여 행동적 차원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사회적 ‘위험요소’와 이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준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권력과 노동, 그리고 산업적 위험요소를 넘어서, 인류의 새로운 위험인 환경적 위험요소를 지각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시도한 시초가 된 것이다.

제2 절 뉴미디어의 역할

이른바 광장문화와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현대의 시민문화에 가장 큰 촉매제가 된 것은 바로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두 뉴미디어, 즉 새로운 의사소통과 전달도구의 등장이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담론의 생성과 확산, 참여와 행동의 독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모바일은 빠른 전송력과 휴대성을 기반으로 집합의 가속화와 빠른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이들 미디어들은 오프라인에서 맞닥뜨리는 시간과 공간 등의 여러 가지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우며, 따라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환경을 이전보다 더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뉴미디어가 현대의 시민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논해 보고자 한다.

1. 담론의 생성 및 확산과 인터넷

2008년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개인은 조직과 집단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대규모 촛불시위의 출발이 되었던 2002년의 두 여중생 사망 사건 때의 촛불집회도 한사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 촛불집회도 역시 어느 고등학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수많은 개인들이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과 MBC의 100분토론 게시판, 각종 카페와 블로그에서 논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면서 나름의 판단과 결정을 내린 후에 생성된 담론들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가 열리는 물리적 공간인 ‘광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인터넷 촛불집회’를 통해 연대에 동참했으며, 인터넷에서 각종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인터넷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시민문화 형성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하버마스가 중요시했던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껏 텔레비전, 신문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는 하버마스가 기대했던 ‘합리적인’ 의사소통환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과 권력에 밀려 합리적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생활세계에 속한 시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물리적 공간 개념으로서의 토론의 장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매개되는 공간으로 재편성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스미디어는 정치권력과 거대 자본가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정치권력의 남용과 지나친 상업주의로 인하여 더 이상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지만 매스미디어에 의한 합리적 의사소통공간의 부재에 대한 문제는 정보사회에서 등장한 사이버 공간, 즉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 인터넷은 쌍방향 토론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하버마스가 제기하였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 도출의 개념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 숙의와 공적 시민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기능적 조건들이 충족되는 공간으로서 이상적인 담론의 장의 형성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는 이러한 한계점 극복의 살아있는 예가 되는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인터넷과 오프라인의 시민문화를 연계해 바라보아야 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터넷의 기술적·기능적 조건을 바탕으로 2008년 촛불집회에 나타난 인터넷의 영향력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은 ‘쇠고기 파동’이라는 이슈의 초기화에 담론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특히 ‘아고라’라는 포털사이트의 자유토론장과 MBC ‘100분토론’ 인터넷 게시판이 담론 생성과 공감대 형성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한 인터넷 게시판이 동시에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인터넷이 개인과 개인 뿐 아니라 집단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론의 생성과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자유롭고 빠른 속도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담론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는 정보의 전달과 확산 과정에서 기존의 미디어가 필요로 하는 매개물질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터넷이 가지는 기술적 조건에 따른 결과이다. 즉, 정보 전달을 위해 종이라는 매개물질을 필요로 하는 신문, 레코더라는 매개물질을 필요로 하는 텔레비전과는 달리 매개물질 없이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게시글 또는 뉴스 퍼오기, 댓글 달기, 메신저 대화 등 정보전달과 생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정보의 빠른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담론은 순식간에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클릭’을 통해 퍼져 나갈 수 있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이메일, 메신저라는 주요 파급 채널을 통해,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는 메일링 리스트, 인터넷 방송,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채널을 통해,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카페나 클럽의 게시판, 뉴스그룹, 포털사이트 등의 채널을 통해 정보가 쉽고 빠르게 전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담론이 확산된 것이다.

셋째, 인터넷은 사이버 상에서 하나로 결집된 의견과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 행동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즉, 인터넷은 담론의 생성—확산—오프라인 집회 참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전에는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통 의제가 없었던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그리고 집단과 개인 사이의 다양한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나아가 토론 공간으로서의 인터넷 게시판 및 토론장은 ‘인터넷 촛불집회’ 등과 같이 실제 공동체와 가상 공동체의 결합, 그리고 연대된 공동체 조직의 정치적

확장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넷째, 인터넷은 오프라인에서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와 담론을 생성해 촛불집회가 지속적인 시민들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였다. 인터넷에서 출발한 촛불집회의 움직임은 그 연대와 동원이 날을 거듭할수록 커졌고, 이를 위한 제반 이슈에 대한 논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졌다. 촛불집회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을 때,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꾸준히 ‘쇠고기 파동’이라는 이슈가 논해졌고, 촛불집회를 폭력적 방법으로 억압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슈화해 새로운 담론을 생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는 또다시 오프라인의 행동적 차원에서의 연대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 미디어를 대체하는 대안적 뉴스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곳곳에 시민기자, 일일 리포터가 등장해 집회 현장을 생중계했다. 이들은 현장 밀착형 취재로 기존 매스미디어가 현장 이슈를 왜곡되게 프레임하고 의제의 노출을 입맛에 맞게 프레이밍하는 방법으로 편향적인 공중의제를 생성하는 것에 반발해 나타난 집단이다. 이들은 휴대가 간편한 노트북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브로(WiBro) 기술을 이용해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인터넷에 올렸고, 이것이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극해 이들을 집회 현장으로 결집하게 하였다.

여섯째, 인터넷은 대안적 뉴스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매스 미디어에 의제를 제공하는 이른바 ‘인터넷을 통한 역의제 설정(Internet-mediated reversed agenda-setting)’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의제화 된 이슈가 단시간 내에 매스 미디어의 정보원이 되어 매스미디어의 의제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매스미디어에서 주의제가 설정되고 이에 대한 토론과 소의제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생성되었으나, 이제는 그 흐름이 뒤바뀐 것이다. 이는 촛불집회에서 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변인이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 미디어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구별되는 사이버 공간의 접근성, 콘텐츠의 방대함으로 미디어 이용자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확

대되면서, 인터넷이 다른 미디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의제 설정의 움직임은 초기 단계에서 『오마이뉴스』와 같은 인터넷 언론이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팩트들(facts)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김성태·이영환(2006)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에서 어떠한 사안이 의제화 되면, 하루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를 매개로 이슈의 파급성은 현저히 증가하고, 신문이나 방송은 상대적으로 늦게 그 이슈들을 보도하였는데, 이슈의 비중에 따라 특성 의제는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공적 의제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인터넷의 역의제설정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발전된 형태를 띤다. 초기발화자의 팩트를 인터넷 언론이 먼저 의제화 시킨 것을 매스미디어에서 다시 의제설정 하였던(즉, 발화자—인터넷 언론—매스미디어) 기존의 역의제 설정의 순환과정에서 ‘인터넷 언론’이라는 매개의 역할이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에 관한 역의제설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것은 인터넷 언론보다는 시위 참가자 또는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인터넷 결사체인 카페, 클럽, 블로그 등이었다. 카페, 클럽 등에서 이미 이슈화된 팩트가 인터넷 언론을 거치는 과정을 겪지 않고 스스로 매스미디어의 정보원, 이슈가 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언론 등의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인터넷 결사체 내에서 충분히 팩트의 이슈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슈화를 가늠케 하는 것은 주게시물과 댓글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성, 이른바 ‘펼’으로 표현되는 주게시물 퍼나르기 등이다. 이를 통해 매스미디어는 인터넷 상에서 시민들의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공중의제로까지 발전시키는 ‘변형된 역의제 설정’ 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

전통적 매스 미디어가 사이버 공간의 의제를 사회의 중요 의제로서 보도할 경우 대부분은 공중 의제화 되었다. 특정 이슈에 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티즌이 활동이 매스 미디어의 의제설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터넷 시대의 의제설

정에서 일반 시민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메시지 생산자로서의 기능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에서 기존의 의제 설정의 순환과정에서 인터넷 언론이라는 매개의 역할을 축소시켜 미디어와 시민의 의사소통 구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기능한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들은 매스미디어가 실현하지 못한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을 인터넷 공간이 다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의 예증이 될 수 있다. 즉 매스미디어에 의존한 민주주의가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배제한 왜곡된 민주주의를 초래하고 있음이 드러난 후 이러한 사이버 공간, 즉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Fishkin, 1991; McChesney, 1997)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실증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연대의 가속화 도구로서의 모바일

본 연구에서 새로운 시민문화의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미디어로 인터넷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모바일은 이중적 의미로 적용된다. 첫째는 넓은 의미에서 기기의 휴대성을 높여주는 기술적 의미로서의 모바일이며, 둘째는 흔히 휴대전화라고 일컫는 모바일 폰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모바일이다. 촛불집회 의제의 확산과정에 가속도를 붙여준 이 두 가지 의미의 모바일을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민참여와 의제 생성에 사용된 휴대 기술인 ‘와이브로(WiBro)⁶⁾’와 오프라인 집회현장인 광장에서 시민들의 폭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일인 미디어로서

6)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인터넷(Wireless Broadband Internet)의 줄임말이며, 외국에서는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라고 한다. 무선광대역인터넷, 무선초고속인터넷, 2.3GHz 휴대인터넷 등으로 풀이된다. 먼저 와이브로 기술은 무선 휴대인터넷 서비스로서, 휴대형 무선단말기를 이용해 정지 및 보행 또는 시속 60km로 이동하는 상태에서도 고속 전송속도로 인터넷에 접속,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노트북·PDA 등에 무선랜과 같은 와이브로 단말기를 설치하면 휴대폰처럼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의 ‘휴대전화’로 대상화하였다.

와이브로의 기술적 특성은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제 생성과 전달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여기에서의 의제라 함은 매스미디어의 헤게모니에 따른 프레임링과 프라임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해 집회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간에 생중계 했다. 촛불집회 초기에 이러한 시민들의 행위는 촛불집회 참여를 더욱 더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6·10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는 후부터 강력해진 정부의 집회 진압을 겪으면서부터는 시민기자의 수와 그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이버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반정부적 성격을 지닌 수많은 의제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평화적 성격의 촛불집회를 폭력적 방법으로 진압하고자 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더 많은 시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각성을 지닌 시민기자들의 고발성 동영상 및 사진 등은 역으로 매스미디어의 정보원이 되기도 했다. 시위의 현장에서 밀착 취재한 시민기자들의 사진에서, 또는 시위 참여자들의 일인 미디어에서 나온 정보들을 매스미디어가 활용한 것이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시민기자의 등장은 시민문화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즉 시민들 스스로가 메시지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권력체계·자본체계 지향적으로 가공된 메시지를 대중에게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시민들은 매스미디어로 인해 합리성을 잃고 재봉건화된 공론장에 합리적 의사소통이라는 새로운 기능성의 길을 열게 되었다. 와이브로라는 기술은 즉각성, 빠른 의제생성, 현장 밀착성이라는 특성으로 이러한 기능성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둘째로 휴대전화는 일인 미디어로는 가장 개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효과적인 미디어로서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연대의 가속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와이브로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동성과 장소의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휴대전화는 특히 개인성, 상호작용성, 그리고 위치기반성이라는 차별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수에게 음성, 문자, 그리고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메시지의 전달 이후 즉각적인 효과측정이 가능하며 메시지의 시의성도 매우 높다. 2G 휴대전화기술의 도입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동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는 특정대상을 선별하여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는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던 토론에서 도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담론을 오프라인인 광장으로 옮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휴대전화가 집단적, 조직적 참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결정과 참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특히 이전의 시민문화에서 제외되었던 중·고등학생, 주부, 여성 등 개인적 성향이 강한 집단이 집회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익명의 개개인들을 하나의 연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동원’되었다는 루머가 나올 정도로 집회에서 이들의 결집력과 연대가 강해진 것도 휴대전화의 힘이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리 조직되거나 연대에 가담되어있지 않았으나 이들 스스로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토론과 이에 따른 쇠고기 수입반대 담론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집회참여로 행동을 옮기고, 행동을 독려하는 데에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휴대전화에 익명 또는 실명으로 오프라인 행동 참여에 동참하자는 SMS가 찍히고, 이에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집회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는 이로써 자발적 자기조직화의 도구가 되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자발적 자기조직화와 달라진 시민문화에의 동참으로 앞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질 집회와 연대문화까지 바꾸어놓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휴대전화는 그 기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시민문화 주축세력을 기존의 대학생, 노동자, 남성에서 사회 구성원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공헌했다. 또한 평화적 저항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고, 능동적인 시민참여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현대 시민문화의 상징적 전환 계기가 되었다.

제3 절 새로운 시민문화와 생활세계의 복원

하버마스는 사회구조를 원시사회, 전통사회, 자유 자본주의사회, 후기 자본주의사회로 분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후기 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후기 자본주의사회는 정체성 위기의 사회이다. 구체적으로 자유 자본주의사회가 주로 경제적 위기라는 체계위기에 시달리는 사회라고 한다면, 후기 자본주의사회는 정당성 위기와 동기화 위기라는 정체성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사회통합이 위기에 처해있는 사회인 것이다. 시장의 기능적 결함으로부터 시작한 후기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는 곧 이러한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체계의 위기로 확대된다. 정치 체계의 위기는 대중들이 정치체계에 충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정당성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정당성의 위기가 커지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 그만큼 더 팽창함에 따라 자율영역인 사적영역, 즉 생활세계에까지 침입함으로 정당화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버마스는 이러한 국가의 개입, 경제적 위기와 한계를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개념으로 규명하면서, 식민화와 병리적 사회현상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생활세계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즉 합리적 커뮤니케이션행위이론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해 불합리한 체계에 저항하며 규범적 합의를 해나가는 상황을 하나의 이상상태로 상정한다.

여기에서 생활세계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배후에 존재하면서 상호이해과정에 공통의 문화적 맥락과 자원을 제공하게 되므로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들은 생활세계에 기반을 두어 상호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생활세계는 불합리한 체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들의 행위 기반이자 종국적으로는 담

론에 관한 합리적인 발화와 논증,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이상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성을 잃은 경제 및 정치 체계와 이것의 파생물로서의 2차적 위험들에 저항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생활세계의 복원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현 정권의 정당성의 위기는 1차적으로 한·미 FTA라는 새로운 경제적 체계의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의 위기로 풀이될 수 있다. 이것은 하버마스가 지적한 후기 자본주의사회의 정체성 위기와 맥락상 일치한다. 타국과의 무역협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국 경제 주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한·미 FTA를 반대하고 정권을 비난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늘어나면서 현 정권에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이다.

정당성의 위기는 2차적으로 이러한 경제·정치체계의 위기에서 파생된 2차적 위험, 즉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기인한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 인지’가 더해지면서 극대화되었다. 체계와 위험에 의한 생활세계의 변형과 ‘먹을 것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의 침해가 심각해짐을 인식한 시민들은 생활세계의 복원을 위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언어를 매개로 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기반이 되어 돌아가는 생활세계에서 체계에 의해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저항의 목소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계급해체적·시민주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모임이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형성된 모임은 문화적 축제의 형태를 띠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위험’이라는 주제 하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생성된 사이버 공론장은 모바일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 의제와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시민들 사이에 빠르게 전파해 주었으며 시민연대를 더욱 더 끈고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촛불집회는 참여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소통행위의 네트워크로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며 기존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을 제공해 주었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개방된 의

식을 가지고 인터넷 공론장을 통해 확산된 다양한 의제와 담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호소통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이성이 실천과 연대로의 이어진 참여행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은 적극적인 생활세계의 해석과 이를 통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 기존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의 도구로서 촛불집회라는 새로운 시민참여 행위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촛불집회가 현대 사회의 새로운 시민문화로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이상적 생활세계 복원의 가능성을 일부 확대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 절 결 론

우리사회에서 합리적 의사소통행위를 수단으로 생활세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저항과 시위 등 이른바 ‘시민문화’를 통해 나타났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시민문화는 이전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시위방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달라진 의식의 영향도 컸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토론을 가능케 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었다. 즉,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등장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합리적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참여에 제한이 없는 환경은 생활세계로의 회귀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뒷받침해주었다. 이러한 생활세계 복원 노력은 합리적인 공론의 장의 마련과 더불어 이를 행동적 차원으로 옮긴 광장에서의 시위, 즉 촛불집회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 계층들의 참여, 평화적이며 심지어 축제적이기까지 한 시위의 분위기 등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시민문화의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 또한 강력해 촛불집회의 참여 자체가 시민들 스스로에게 정치적 힘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동이 되기도

하였다.

각 사회 운동 분야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2008년 촛불집회 이후의 시민문화는 의제의 설정과 확산, 그리고 그 연대와 결집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하승창(2008)의 분석대로, “90년대 운동이 이제 그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사회 운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1987년 6월을 거치며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90년대의 시민운동에게 그 사회적 지위를 내어주었듯”(55쪽)이, 이제 다른 성격의 시민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체계의 억압에 저항하는 하나의 참신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민문화의 변화 의미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생활세계에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결합과 동조가 확대되어 체계에 대항하는 생활세계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촛불집회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시민문화는 체계에 대한 저항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이상적 환경이라 여겨졌던 생활세계의 특징이 현대 시민문화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경험적 맥락으로 발현되면서 권력과 자본이라는 체계에 의해 식민화되었던 생활세계의 복원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생활세계의 전근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촛불집회는 우리나라가 성숙한 시민문화와 의사소통합리성이 실현되는 진정한 의미의 공론장 실현에 진일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증적 사례가 되었다.

이제 전통적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새로운 세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정치적·사회적 의제들을 생산,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실증적 반영인 현대의 새로운 시민문화는 앞으로 국가권력과 비합리적 정치·권력체계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체제와 신자유주의 질서가 모순되게 교직되어 있는 경제체계의 문제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다. 이로써 그 모순을 타파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근대적 의식을 담보하고 있는 체계와 체계에 의해 변형되고 식민화된 생활세계의 변화가 점층적으로나마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Almond, G.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ck, U. (1986). "Riskogesellschaft aul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Suhrkamp.
홍성태 역(1997).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 Fishkin, J.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2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M: Suhrkamp.
- Habermas, J. (1986). Entgegnung. In Axel Honneth/ Hans Joas(hg.), *Kommunikatives Handelns*, Frankfurt.
- Habermas, J. (1990).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s, Thomas Burger(trans.) Cambridge: MIT Press. 한승원 역(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나남
- Husserl, E. (1962), Ideas: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W. R. Boyce Gibson, trans.). New York: Collier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13).
- McChesney, R. W. (1997). *Corporate media and the threat to democracy*.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 McChesney, R. W. (2000). *Rich media, poor democracy: Communication politics in dubious times*. New York: The New Press.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Thousand Oaks, CA: Sage.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Schor, & Holt, (2000). *The consumer society reader*. New York: The New Press.

Schütz, A. (1966). *Gesammelte Aufsätze*, III, Den Haag, 1971.

Turow, J. (1997). *Breaking up America: Advertisers and the new media worl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강수택 (2006). 사회적 연대 담론의 구조와 시민문화. 『한국사회학』, 40권 6호, 25-56.

강수택 (2007). 서구 시민문화의 최근의 변화양상. 『사회이론』, 31권, 107-137.

김성태 · 이영환 (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175-204.

김왕배 (2005). 생활세계의 변화와 삶의 정치.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5-37.

김호기 (1995).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 1987~1992,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김호기 (2000).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구조적 변동, 『인문과학』, 82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문병훈 (1996). 하버마스의 규범적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그 언론학적 수용. 『한국언론학보』, 38권, 249-296.

박성호 (2005). 여론형성공간으로서의 인터넷 자유 게시판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권 3호, 119-226.

박인철 (2006). 생활세계와 의사소통: 후설과 하버마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31집, 1-33.

서도식 (2001). 하버마스의 사회 이론적 생활세계 개념. 『철학』, 69권, 203-230.

오현철 (2004). 한국 시민사회론 비판과 대안: 하버마스 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사

- 회』, 2004년 여름호, 통권 62호, 243-266.
- 이동연 (2008). 촛불집회와 스타일의 정치. 『문화과학』, 55호.
- 이정춘 (2008). 『매스컴 사회학』, 서울: 이진출판사.
- 이흥균 (1996). 소외론의 시각에서 본 물상화론(I)-루카치와 하버마스. 『현상과 인식』, 통권 68호, 151-166.
- 정호근 (1995). 서양철학 논문 ; 근대성의 변증법과 비판적 이성의 기능 및 가능성 - 위르겐 하버마스 (J. Habermas) 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의 비판적 검토, 『철학』, 43권, 389-416.
- 조맹기 (2006). 하버마스(Juergen Habermas)의 공론장 형성과 변동-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8.
- 하승창 (2008). 주장과 대안 : 2008년 촛불집회와 사회운동, 『노동사회』, 135권, 54-64.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연구 시리즈 안내

- 08-01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연구-총괄보고서 (황주성, KISDI)
- 08-02 방통융합의 철학과 비전 (황주성, KISDI)
- 08-03 방통융합시대 시민참여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원태, KISDI)
- 08-04 방통융합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변화 (손상영, KISDI)
- 08-05 방통융합 시대의 행복감 연구 (최항섭, KISDI)
- 08-06 방통융합 시대의 미디어 이용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이호영, KISDI)
- 08-07 방통융합의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결정 거버넌스 연구 (정국환, KISDI)
- 08-08 방통융합시장의 특성과 경쟁정책기조의 변화 (손상영, KISDI)
- 08-09 이용자 중심의 방통융합성과 분석방안 연구 (황주성, KISDI)
- 08-10 컨버전스 시대 지속가능한 미디어 환경을 위한 정책연구 (이호영, KISDI)
- 08-11 온라인 세대의 네트워킹과 집단지성화에 대한 미래 정책 연구 (최항섭, KISDI)
- 08-12 컨버전스 시대의 한국사회 메가트렌드 연구 (최항섭, KISDI)
- 08-13 뉴미디어에 대한 매체철학적 해석 (이승중, 연세대)
- 08-14 탈근대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관계의 변화 (노명우, 아주대)
- 08-15 뉴미디어의 의사소통성과 쌍방향성 (노기영, 한림대)
- 08-16 커뮤니케이션 방식 진화에 따른 세대 간 인간관계의 변화 (구철모, 조선대)
- 08-17 사이버공간의 도움행동과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임영식, 중앙대)
- 08-18 미디어에 대한 신뢰와 사회여론의 변화 (김세은, 강원대)
- 08-19 공론장과 집단행동의 변화 (송현주, 한림대)
- 08-20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자본과 미디어 이용 (정재기, 숭실대)
- 08-21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 (이재신, 중앙대)
- 08-22 복잡계와 네트워크 사회의 변화 (이명진, 고려대)
- 08-23 가상현실 내에서의 사회구조의 형성과 변화 (이연호, 연세대)
- 08-24 컨버전스로 인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 변화 (남기범, 서울시립대)
- 08-25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수용과 문화정체성 (김영찬, 한국외국어대)
- 08-26 미디어과잉과 사회의 불확실성의 증가 (구교태, 계명대)
- 08-27 다중미디어환경에서의 수용자의 특성과 미디어선택 (황하성, 동국대)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08-21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

2008년 12월 일 인쇄

200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 쇄 크리홍보(주)

ISBN 978-89-8242-446-5 94330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http://www.kisdi.re.kr>



9 788982 424465
ISBN 978-89-8242-446-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